

북원경·중원경·서원경의 설치배경과 역사적 의의

이인재*

-
- I. 통일전쟁 마감 이후 지방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주도세력 양성
 - II. 영속관계형 군현제와 9주·5소경
 - III. 6-8세기 북원경·중원경·서원경의 설치와 운영
 - IV. 소경에서의 경제생활과 문화생활
 - 1. 경제 생활
 - 2. 문화 생활
 - V. 9-10세기 중규모 광역통치단위로서의 부(府)와 소경(小京)
 - VI. 맺음말
-

【국문초록】

삼국통일전쟁을 마무리한 신라는 옛 백제 사람, 옛 고구려 사람들이 온전한 신라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제도를 개편하였다. 지방제도 개편의 담당자는 설총의 문자혁명과, 그에 동반된 교육혁명으로 양성된 중상층 실무관료층이었다.

지방제도 개편의 수단은 중국식 군현제였지만, 남북국기 신라가 채택한 군현제는 삼국기 신라의 역사적 경험이 반영된 영속관계형 군현제였다. 삼국기 신라는 각 지방의 대등과 서울의 대등의 관계가 수평적·다원적인 연맹국가였다. 남북국기 신라는 이에 더해 각 지방세력들에게 자체 반차(班次)를 인정해 주는 관반체제 국가였다. 그런 지방세력을 재지관반이라고 불렀다.

이런 지방제도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남북국기 신라의 소경들이었다. 소경의 장관들은 대등들과 협력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촌주들과 함께 정책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이런 지방 운영은 전통 세력들과 충돌하여, 9세기 이후 변화함과 동시에 왕조 멸망을 초래하여 고려식 지방제도로 개편되고 말았다.

주제어 : 설총, 영속관계형 군현제, 대등, 관반, 소경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I. 통일전쟁 마감 이후 지방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주도세력 양성

김춘추는 삼국시대에서 남북국시대에 걸친 신라의 제도 개혁을, ‘당이상잡(唐夷相雜)’이라 칭하였다.¹⁾ 중국의 유학적 천하질서와 한국의 전통적 자국질서를 융합한 제도 개혁이었다는 것이다. 고조선 이래 자국 역사에 자부심이 강했던 신라가 그러한 조치를 써야 할 배경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큰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사실 삼국 통일 전쟁은 고구려, 백제, 신라 어느 나라든지, 지역에 따라 엄청난 인구의 감소 및 떠돌이를 막을 수 없었고, 농토의 막대한 피해를 감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660년 백제의 멸망부터 고구려 멸망, 당군의 격퇴에 이르는 수십 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 수행자인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농민들의 사망과 납치, 고향을 떠나 떠도는 사람(유민, 流民)들이 너무나 많았다. 군인으로건, 피난민으로건 고향을 떠나 타향을 떠도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전쟁 수습책으로 신라 정부는 전국 어느 마을이건, 토박이나 외지인을 가리지 않고 조사하여 거주 마을의 호구로 등록하고, 묵은 밭(진전, 陳田)이건 이미 경작하고 있던 토지(기경전, 起耕田)건 새로 개간한 토지(신전, 新田)건 누구라도 수궁할 만한 토지 측량, 즉 양전을 통해 소유와 권리를 명확히 해 주는 것을 기초로, 촌락을 정비하고, 지방행정을 수습하면서, 교통로를 뚫고, 수리시설을 보수, 확충하며, 가난하고 홀로 된 사람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농지개간, 산전 개발, 농법 개발, 가축 사육과 증식, 뽕나무와 과일나무 키우기 등 농업과 양잠을 장려해야 했다.

이를 위해 신라는, 삼국기 신라가 아니라 남북국기 신라에 맞는 새로운 지방제도 정비가 필요하였으며, 새롭게 정비된 신라의 지방행정은 당연히 문서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했다.

다행히 통일 전쟁 와중에도 신라는 한자를 빌어 우리 말과 음을 표기하는 문자 생활을 본격화하고 있었다. 이전부터 써 왔지만, 삼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을 문자 생활을,²⁾ 미래를 위해 표준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작업의 선두에 신라 고승 원효의 아들, 설총(655~?)이 있었다.

설총은, ① 우리나라 말(방언, 方言)로 9경(經)을 읽어내, 후학들을 가르쳤다.³⁾ 우리나라 말(방언, 方言)로 읽어냈다는 것은, 『역경(易經)』·『서경(書經)』·『시경(詩經)』·『예기(禮記)』·『춘추(春秋)』·『효경(孝經)』·『논어(論語)』·『맹자(孟子)』·『이아(爾雅)』 등 중국 고전 문장의

1) 『三國史記』 권38, 職官 上. “新羅官號, 因時沿革, 不同其名言, 唐夷相雜”

2) 삼국시대 사람들의 말은 서로 의사 소통이 되는 말 그대로의 한국말이었을 것이나, 한자를 빌은 문자 생활을 하였으므로, 지역과 시기, 신분에 따라 한자 활용 표기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겠다. 김방한, 1983.

3) 『삼국사기』 권46 薛聰.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

명사와 술어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모두 분류하여, 각각의 한자 용어를 중국식 한자음이 아니라 한국식 한자음(방음, 方音)으로 바꾸어 정리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② 우리나라 한자음(방음, 方音)으로 중국과 주변 국가의 풍속과 물건 이름(화이 방속물명華夷方俗物名)을 표기한 사전을 만들어 소통할 수 있게 하였고(통회, 通會), ③ 중국 고전인 육경과 문학의 중국식 한자를 우리말 뜻(훈, 訓)으로 풀어 냈다(훈해, 訓解).⁴⁾ 9경 가운데 6경과 중국 문학서들은, 해당 용어를 중국식 한자음이 아니라 한국식 한자음(방음, 方音)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용어를 우리말 뜻(방훈, 方訓)으로 풀어냈다는 것이다.

마치 우리말(향언, 鄉言) ‘첫 새벽’의 뜻을 살린 한자어를 찾아내어 ‘원효(元曉)’로 쓰고, 이를 중국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음(방음, 方音)인 원효라는 우리나라 말(방언, 方言)로 표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말(향언, 鄉言) ‘부처님 땅’의 뜻을 살린 한자어를 찾아내어 ‘불지(佛地)’로 쓰고 이를 우리나라 음(방음, 方音)인 ‘불지’라는 우리나라 말(방언, 方言)로, 우리말(향언, 鄉言) ‘처음 엮’의 뜻을 살린 한자어를 찾아내어 ‘초개(初開)’로 쓰고, 이를 우리나라 음(방음, 方音)인 ‘초개’라는 우리나라 말(방언, 方言)로 표기하는 것도 같은 방법이었다.

이렇게 해야 같은 발음이 나는 한자어를 우리말 발음(방음, 方音)으로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자 표기의 혼란스러움을, ‘향언→적절한 한자어 선택→방음→방언’ 체계로 정리할 수 있겠다는 발상이었겠다.

한자(漢字)가 중국 한(漢)나라 시대 문자라는 뜻임을 상기에 보면, 이미 중국 진한 제국 시절부터 들어와, 열국이나 삼국의 상층 지배층이나 실무관리들이 목간이나 금석문 등 각종 국가 문서에 사용하였지만, 지역별 계층별로 문자 표기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을 바로 그 한자를 활용하여, 마침내 설총이 우리나라 말과 음을 표기하는 새로운 토대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설총의 업적에 힘입어 이 시기 한국인들은 굳이 중국어를 공부하지 않고서도, 우리 말로 중국 고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한자와 이두(吏讀) 문자 생활이라는 문자혁명을 토대로 신라는, 682년(신문왕 2년) 국학을 설치하여,⁵⁾ ① 15세부터 30세 사이의 학생들을 선발하여[선발대상], ② 9년 수학(修學)

4) 『三國遺事』 권4 元曉不羈 “聰生而睿敏 博通經史 新羅十賢中一也. 以方音 通會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學, 至今 海東 業明經者 傳受不絕. (중략) 其生緣之村名佛地, 寺名初開, 自稱元曉者 蓋初輝佛日之意爾. 元曉亦是方言也, 當時人皆以鄉言稱之始且也”

5) 『삼국사기』 권38 직관 상 國學 “屬禮部, 神文王二年置. 景德王改爲大學監, 惠恭王復故. (중략) 教授之法, 以周易·尚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文選, 分而爲之業. 博士若助教一人, 或以禮記·周易·論語·孝經, 或以春秋左傳·毛詩·論語·孝經, 或以尚書·論語·孝經·文選, 教授之. 諸生, 讀書以三品出身, 讀春秋左氏傳若禮記若文選, 而能通其義, 兼明論語·孝經者爲上, 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 讀曲禮·孝經者爲下. 若能兼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或差筭學博士若助教一人, 以綴經·三開·九章·六章, 教授之. 凡學生, 位自大舍已下至無位, 年自十五至三十, 皆充之. 限九年, 若朴魯不化者, 罷之. 若才器可成, 而未孰者, 雖踰九年, 許在學. 位至大奈麻奈麻以後, 出學.” 하지만 평가와 선발 과목은 주로 5경 가운데에는 예기, 13경 가운데 하나인 효경을 위주로 하였고, 이에 더하여 춘추와 논어와 문선 등의 고전 해석 능력을 중시하였다.

기간 안에[교육 기간], ③ 우리나라 말(方言)로 정리된, 『역경(易經)』, 『상서(尙書)』, 『시경(詩經)』, 『예기(禮記)』, 『춘추(春秋)』 등 다섯 가지 경전과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등 세 역사책,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활약했던 여러 학자들의 저술(諸子百家)과 산술서(算術書) 등을 읽게 하였다[교육내용]. ④ 더구나 신라는 이러한 이두 문자 생활과 이두 안내서로 작성된 중국 경전과 역사서, 문학서와 산술서 등 국학 교과서로 학습을 마친 사람이라면, 정규 국학 졸업생(문적자, 文籍者)과, 가학자(家學者, 흠 스쿨링)를 차별하지 않았다[문적자와 가학자 차별금지].⁶⁾

그 결과 남북국기 신라는 골품관료 이외에 한문과 이두에 능한 중상층 실무 관료를 양성할 수 있었다. 중국 고전까지 익숙한, 폭넓은 세계관을 가진 인재들이 대거 등장한 것이다. 문자혁명에 이은 교육혁명이었다. 이렇게 양성된 중상층 실무 관료를 토대로 신라 정부는 지방제도 개편에 나섰다.

II. 영속관계형 군현제와 9주·5소경

지방제도 개편의 목적과 수단 : 개편의 목적은 당연히 지방행정의 최전선인 마을과 고을에서 작은 차이이긴 하지만 지나긴 통일 전쟁으로 타향살이를 하지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해당 지역에 머물게 하고, 전쟁으로 무너진 상식을 회복시키기 위해 문서 생활로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마을마다 고을마다 조그맣게 남아 있는 텃세조차 버리라는 요청이었을 텐데, 그런 요청은 설총이 표준화해 놓은 이두 문자와, 중국 고전 공부를 통해 자국 전통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 안목이 한층 높아진 중상층 실무관료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였다.

문제는 신라가 선택한 ‘중국식 군현제’ 라는 개편 수단이었다. 진·한 제국 이래 중국은 수직적·일원적 형태의 제국帝國을 지향한 군현제를 운영해 왔던 것에 반하여, 고조선 이래 한국은 수평적·다원적 형태의 연맹 국가를 지향한 지방제도를 운영해 왔다. 농업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제국보다는 연맹 국가 형태가 훨씬 자연스러운 대국大國 체제이다.⁷⁾

6) 후술할 소규모 광역 행정 구역의 지방관 파견이 구체화되면서, 중간 실무 관료 양성 필요성이 증가하자, 788년(원성왕 4) 종래 예부 주관으로 국학 출신 인재 중심으로 선발하던 체제에서 비 국학출신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인재들을 선발하게 되었다. 유명한 자옥의 사례가 증거이다. 『삼국사기』 10 원성왕 4년 봄 “始定讀書三品以出身. 讀春秋左氏傳·若禮記·若文選, 而能通其義, 兼明論語·孝經者爲上, 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 讀曲禮·孝經者爲下. 若博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前祇以弓箭選人, 至是改之.” 『삼국사기』 10 원성왕 5년 9월 “자옥(子玉)을 양근현(楊根縣) 소수(小守)로 삼았다. 집사사(執事史) 모초(毛肖)가 반대하며 말하기를, “자옥은 문적(文籍)으로 선발된 사람이 아니므로, 지방관의 직분[分憂之職]을 맡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시중(侍中)이 의견을 말하기를, “비록 문적으로 선발되지는 않았지만, 일찍이 당으로 들어가 [국자감의] 학생(學生)이 되었으니, 또한 [지방관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왕이 그 의견을 따랐다.”

7) 우리나라 지방제도 체계의 기초는 마을과 고을과 나라이다. 마을에는 원님이 없지만, 고을부

원래 전근대 농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은 농민과 농토이다. 그 가운데 농토는 옮길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농토를 옮길 수 없으니, 농사를 짓는 농민도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양인 농민이건, 노비 농민이건 같은 처지이다. 토지에 긴박되는 것이다. 당연히 농토의 주인 역시, 해당 농토를 떠날 수 없다. 자경농은 물론이고, 중소 혹은 대지주라 해도 마찬가지이다.⁸⁾

마을과 고을을 기초로 하는 지방제도의 형성과 개편도 농민이 농토에 긴박되는 농업사회의 특성을 피할 수 없다. 지방제도의 토대에는 수많은 고을과 마을이 있었을 것인데, 개개 고을과 마을에는 농업사회의 특성상 대대로 해당 지역 농토와 마을, 혹은 고을을 관할해 왔던 토박이 권력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고을 경계가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라고 해서 개이빨처럼 들쭉날쭉한 것이나, 심지어 비지(飛地)라고 해서 남의 고을에 버젓이 자신의 고을 땅이 있는 것도, 오랜 기간 농토에 긴박되어온 농민들의 전통을 존중하였기 때문이었다.

농민들이 토지에 긴박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이건 돈의 힘이건, 웬만한 사정이 아니면 해당 고을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토박이 세력을 교체할 수 없다. 농업사회에서는 이주해 온 사람들도 어차피 대규모건 소규모건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고, 농사를 짓는 한 그 땅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주민이 토착민이 된다. 이는 신분고하를 막론한다.

따라서 국토 균형발전이라든가, 권력과 지식의 이동을 목적으로 사민(徙民) 등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 이동 정책을 시행코자 하는 중앙정부는 이러한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지방제도 개편을 시행해야 했다. 고조선 이래 열국과 삼국은 이러한 특성에 맞추어 마을과 마을간, 고을과 고을간, 소국과 소국간 수평적·다원적 형태의 연맹 국가를 우리의 환경에 맞는 국가 형태로 선택해 왔다. 정치, 경제, 군사 여러 분야의 운영이 그러하였다.

그런데 남북국기 신라가 선택한 지방제도 개편의 수단은 중국식 균현제였다. 주군현이라는 중국식 행정단위를 쓰고, 행정단위의 명칭을 한자로 바꾸긴 쉽지만, 역사와 전통이 다른 신라가 중국식 균현제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었다. 그에 따라 당시 신라가 선택한 균현제는 균을 중심으로 몇몇 현을 묶어 소규모 광역행정단위를 만들어 운영하는 영속관계형 균현제였다.

영속관계형 균현제는 남북국기 신라와 고려전기에 시행하였다. 신라는 소규모 영속관계를 운영했지만, 고려 전기에는 중규모 영속관계를 운영하였다. 신라보다 고려가 농업사회의 특성에 맞게 수평적·다원적 정치·경제 관계로 운영되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

터는 원님이 있다. 거버넌스(의사결정조직)가 있었다는 것이다. 나라는 작은 나라(소국)도 있고, 큰 나라(대국)도 있다. 마을이 연맹해서 고을이 되고, 고을이 연맹하여 작은 나라가 되고, 작은 나라가 연맹해서 큰 나라가 된다. 예전에는 신분에 따라 원(員)·인(人)·명(名)·구(口)로 사람 숫자를 셐는데, 원님은 원(員)님으로, 이는 곧 원(員)이라 불릴 관원이 있는 마을, 곧 고을을 말한다. 한편 낙랑군이라는 균현제 경험에 대해선 후고를 기약해 둔다.

8) 자기 소유 농토와 함께 사는 지주를 재지(在地) 지주라 하고, 자기 소유 농토에서 벗어나 생활하는 지주를 부재(不在) 지주라고 하는데, 농업사회에서 농토와 농민 관리의 위험성이 높은 부재(不在) 지주로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창기 영속관계형 군현제 운영을 이해하는 것은 연맹국가 형태가 제국 지향의 군현제에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매우 중요하다.

영속(領屬)관계형 군현제의 실체 : 삼국기 신라에 대등(大等)이 있었다. 대등은 기본어 ‘등(等)’에서 발전한 용어이다. ‘등(等)’은 향언(우리말) ‘빙글빙글 돌다’의 ‘돌’의 적절한 한자어를 택해 한국식 한자음(방언)으로 표시한 용어로서, 대등은 각 소국의 거버너스(‘간주’적 지배체제)에서 각 마을과 고을을 빙글빙글 도면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자(公務者)였다.⁹⁾ 이렇듯 대등은 원래 남북국시대에 시작된 의제적 군현제의 군현 이전 형태인 소국(小國; ‘간주’적 지배체제)의 지배층이었다. 소국은 소국의 행정 치소가 있었던 고을과 여러 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 마을에서 농경 생활을 하고, 고을에 모여 행정 및 문화생활을 하면서 공무를 집행하던 존재였다.

대등은 연맹 국가의 주변 소국(小國) 소속일 경우에는 스스로를 재지대등(在地大等)이라고 간주했지만, 연맹 국가(대국, 大國)의 주도 소국, 말하자면 왕성의 공무에 참가할 때에는, 주도 소국의 대등과 함께 재경세력의 신분제에 포섭된 재경대등(在京大等)이 된다. 그 방법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용어가 마립간이다.

마립간이라는 말은, 우리말(향언鄉言) ‘말뚝’의 뜻을 살린 한자어를 찾아내어 ‘麻立’으로 쓰고, 마립간이라는 우리나라 말(방언方言)로 표기하는 것이다. 말뚝을 중국식 한자의 뜻을 살려 만든 말이 함조(諫)인데, 함조는 말 그대로 (왕이 중심이 되어 주도 소국과 주변 소국의 대등들을) 조화를 이루어(和同) 부린다(操)는 뜻이다. (회의 참가자의) 직위 표시를 하기 위해 신라는 ‘말뚝’을 자리마다 설치하였는데, 왕 관련 인사들을 위한 말뚝이 주가 되고, 그 주변에 신하 관련 인사들의 말뚝을 벌려 표시하여 사람들이 늘어서게 했다.¹⁰⁾

말하자면 마립간(=말뚝왕)은, 조정(朝廷)회의를 할 때 예하 소국들의 신하들을 도열하게 하였는데, 예하 신하들은 마립간이 서열을 나누어 표시해 놓은 말뚝 위치에 서서 회의에 참가했다는 것으로, 재지 대등이 주도 소국의 중심지, 즉 서울 어느 곳에 가서 왕을 중심으로 해당 소국의 대등과 함께 모여, 재경대등의 일원으로서 말뚝 표시에 따라 늘어세운 임금이 마립간이었던 것이다.

재지대등들이 서울에 가는 이유는, 연맹국가에 소속되는 소국들이 부여와 고구려의 회동과 같이 서울에 소집되었기 때문이었다. 회동(會同)은 조공 가운데 부정기적으로 만나거나(회) 단체로 만나는 것(동)으로서,¹¹⁾ 부여와 고구려의 왕이 주변 소국들의 공무자를 서울로 모아 당해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는 행사였다.

9) 김광수, 1996; 한편 이기백은 대등은 “① 귀족회의의 구성원으로, ② 부족장이었다가 재경중심의 골품제로 편입된 족장층으로, ③ 나말여초 지방호족의 당대등과 대등 역시 같은 계통의 용어”라고 하였다. 이기백, 1962.

10) 『삼국사기』 권3 눌지 마립간 원년 “麻立者, 方言謂檄也. 檄謂諫操, 淮位而置. 則王檄爲主, 臣檄列於下, 因以名之.” 『삼국유사』 권1 남해왕 “或曰麻立干 立一作袖, 金大問云 麻立者 方言謂檄也. 檄標 淮位而置, 則王檄爲主臣檄列於下, 因以名之.”

11) 이인재, 2024.

그런데 고구려의 경우 회동 참가자인 왕 직할지 관할 가신들(사자조의선인)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통치자들과 함께 격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간주한 데, 반하여 대가 휘하의 가신들(사자조의선인)은 회동할 때에 자신들의 신상명세서를 왕 직할지 관할 가신들(사자조의선인)에게 제출해야 했다.¹²⁾ 위계가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이들이 서울에 모여 조정회의를 할 때, 말뚝 표시로 직위에 구별하여 회의장 안에 설치, 밖에 설치 왕을 중심으로 간격을 벌여 해당 말뚝 앞에 섰을 것이니, 말뚝으로 참가자의 위계를 정해 국정을 논의했다는 말뚝왕(마립간) 시대의 신라가 행한 행사가 바로 회동의 동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성에 따라 연맹국가 형태의 대국에서 대등은 서울 연고 중심의 재경대등(진골 대등 : 진골로서 대등의 직을 가진 자 중심)이 있고,¹³⁾ 지역 연고 중심의 재지대등(지역 출신 대등)이 있었다.¹⁴⁾ 삼국기 신라는 양자의 공생을 토대로 국가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통일전쟁이 일단락되면서, 130여 군현의 원신라지역 외에 140여, 180여 옛백제지역과 옛 고구려지역이 새롭게 통치영역에 들어오게 되었다. 원신라지역을 활동공간으로 했을 때와 다른 방식이 필요하였다. 가령 삼국기에는 주변소국의 인재를 모우는 방향으로 재경대등을 형성하였다면, 남북국기에는 새로운 지역에 이주하면 정착할 수밖에 없다는 농업사회 특성에 맞추어 해당 지역에 재경대등을 이주시켜 옛 백제지역, 옛 고구려 지역 주도세력과 섞여 살게 하여야 농업도 발전시키고, 문화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물론 나름대로 골품관료와 함께, 원신라·원백제·원고구려 출신의 중상층 실무관료들을 양성해 왔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경주 출신 진골 대등들을 소경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대거 이주시키는 것이, 신라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¹⁵⁾ 514년(지증15) 정월 아시촌에 소경을 설치한 다음, 7월에 육부(六部)와 남쪽 땅(南地)의 인호(人戶)를 옮겼고,¹⁶⁾ 557년(진흥왕18) 인접한 충주에 소경을 두었을 때에도 경주의 귀척자제(貴戚子弟)와 육부호민(六部豪民)을 옮겼다.¹⁷⁾ 674년(문무왕14) 육도진골

12) 『三國志』 동이전 “其國有王 其官有相加·對盧·沛者·古雛加·主簿·優台·丞·使者·阜衣·先人 尊卑各有等級 (중략) 其置官, 有對盧則不置沛者, 有沛者則不置對盧 王之宗族, 其大加 皆稱古雛加. 涓奴部本國主, 今雖不爲王, 適統大人, 得稱古雛加, 亦得立宗廟, 祠靈星·社稷. 絕奴部世與王婚 加古雛之號. 諸大加亦自置使者·阜衣先人, 名皆達於王, 如卿大夫之家臣, 會同坐起, 不得與王家使者·阜衣先人同列. 其國中大家不佃作, 坐食者萬餘口”

13) 『삼국사기』 권33 색복 “眞骨大等. 幘頭任意. 表衣·半臂·袴, 並禁闕繡錦羅. 腰帶, 禁研文白玉. 靴禁紫皮. 靴帶禁隱文白玉. 襪任用綾已下. 履任用皮·絲·麻. 布用二十六升已下.” 재경대등의 대표 사례로는 진흥왕 순수비 마운령비, 황초령비, 창령비 등의 대등 사례를 들 수 있다.

14) 『高麗史』 권75 鄉職 성종 2년 “改州府郡縣吏職, 以兵部爲司兵, 倉部爲司倉, 堂大等爲戶長, 大等爲副戶長, 郎中爲戶正, 員外郎爲副戶正, 執事爲史, 兵部卿爲兵正, 筵上爲副兵正, 維乃爲兵史, 倉部卿爲倉正.”

15) 고려의 경우 삼한공신 제도를 이용하여 전국의 지역 인재들을 개성으로 모우는 정책을 폈다. 원주의 경우 원극유가 그런 사례이다. 김광수, 1973 ; 이인제, 2016.

16) 『삼국사기』 권4 지증마립간 15年 春正月 “置小京於阿尸村” (同 秋七月), “徙六部及南地人戶充實之”

(六徒眞骨)들을 9주의 치소(治所)와 5소경에 이주시켰다는 것을 보면¹⁸⁾ 이 시기 지방제도 개편은 사민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삼국기 정복 전쟁이 한창일 때에는 정복지 지배층을 연고지로부터 유리시켜 연고지의 공동체의 단절을 피하면서 지배층을 회유하는 사민 정책이 일반적이었지만,¹⁹⁾ 통일전쟁이 본격화하면서부터 시대의 요청에 따라 육부(六部) 호민을 이주시켜 왕경 문화를 이식한 다음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였다.²⁰⁾ 이러한 정책의 연결선상에서 남북국기 신라도 9주·5소경의 치소에 이주한 육부호민들을 위한 공간을 두었다.

그러나 이는 일방적인 왕경문화의 전파가 아니라 쌍방적인 사회통합정책의 정신 아래 진행되었다. 별칭관명(別稱官名)에 주목하면 진골 귀족조차 9주와 5소경에 강제로 옮겨 일종의 향직(鄉職)에 봉사케 했다.²¹⁾ 이런 쌍방적인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은 원신라 지역 토착세력뿐만 아니라 옛 고구려와 백제 지역 유민들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런 전통은 674년 경주 진골 출신과 호민들을 소경에 옮겨 살게 한지 십여년만인 685년(신문왕5) 남원 소경에 여러 주군(州郡)의 민호(民戶)를 나누어 거주케 한 조치로 알 수 있다.²²⁾

영속관계형 군현제는, 삼국기엔 분명 소국으로 재지대등이 주도하고 있던 지역에, 통일전쟁 마무리 이후에 진골 출신과 호민 등 재경대등층을 사민시켜 섞여 살게 하되, 지역적 사정에 따라 크기를 조절해 외관을 파견하면서, 수직적·일원적이 아니라 수평적·다원적 연맹국가 성격을 살리고자 한 지방정책이었다. 삼국기에 각지의 주변 소국에서 경주라는 주도 소국의 서울에 모여 재경대등을 구성했던 것과 달리, 남북국기에는 재경대등들이 전국 각지로 옮겨 서로 섞여 살며 새로운 지방 농업, 문화, 정치, 사회를 주도하게 했던 것이다. 이것이 중국에서 기원했지만 삼국기의 전통과 충분히 섞인 신라식 영속관계형 군현제였다.

17) 『삼국사기』 권4, 진흥왕 19年 春2月 “徙貴戚子弟及六部豪民 以實國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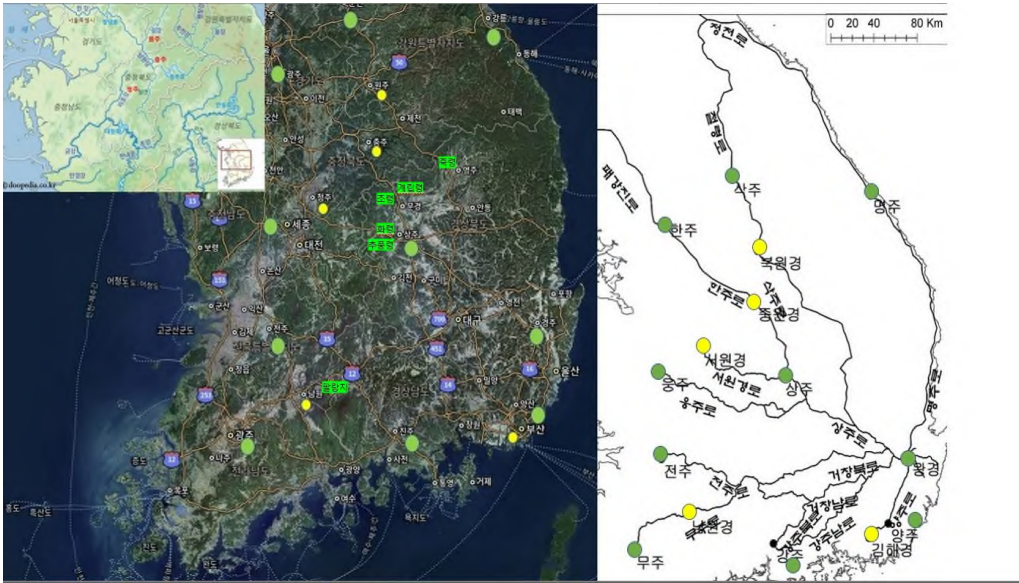
18) 『삼국사기』 권40, 직관 下, 外位 “文武王十四年 以六徒眞骨出居 然五京九州 別稱官名”

19) 실직국이 반하였을 때 신라가 군대를 동원하여 평정한 후 남은 무리들을 사민하는 정책을 폈다. 『삼국사기』 권1 파사나사금 25年 秋7月 “悉直叛 發兵討平之 徙其餘衆於南鄙”

20) 전덕재, 2000. 49~50쪽.

21) 한우근, 1960, 114쪽.

22) 『삼국사기』 권8 신문왕 5년 3월 “置南原小京, 徙諸州郡民戶分居之”



[그림 1] 9주 5소경의 치소

6~8세기 영속관계형 군현과 복원경·중원경·서원경의 설치 : 고구려와 백제와의 통일전쟁에서 최종 승자가 된 신라는, 전국 군현 지역을 9주로 개편하였다.²³⁾ 원신라 지역 130여 군현을 3주(상주, 양주, 강주)로, 옛 백제 지역 140여 군현을 3주(웅주, 전주, 무주)로, 옛 고구려 지역 160여 군현을 3주(한주, 삭주, 명주)로 450여 군현을 나누었다.²⁴⁾ 연이어 757년 12월 경덕왕이 중심이 되어 전국의 군현 명칭을 한국식 한자음(방음, 方音)으로 표기가 가능해진 한자²⁵⁾ 변경하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하였다.²⁶⁾

3주씩 각각 원신라, 옛백제, 옛고구려 지역이었다는 역사에서 출발한 9주(州)라는 광역(廣域) 행정구역 아래, 최소한의 지방관 파견으로 가능한 영속관계를 통해 소규모 광역통치단위의 지방문서 행정을 감당하고자 한 것이다. 그것이 옛 고구려, 옛 백제지역에 살다가 갑자기 신라 사람이 된 해당 주민들에게까지 공정성을 인정받는 길이였다.

당연히 9주의 주(州)는 예하에 최소 35개 군현에서 최대 77개 군현을 거느린 광역행정 단위지만, 주 장관이 예하 군현을 수직적·일원적으로 관할하지 않았다.²⁷⁾ 수평적·다원적 전통과, 옛 삼국의 지역 연고 역사성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각 광역행정의 중심 도시(주, 州 치소, 治所), 말하자면 지금의 도청 소재지에 해당하는 주

23) 『삼국사기』 권34 지리1 “始與高句麗·百濟地錯犬牙，或相和親，或相寇鈔，後與大唐侵滅二邦，平其土地，遂置九州”

24) 『삼국사기』 권34 지리1 “九州所管郡縣，無慮四百五十”

25) 향언(鄉言)을 한국식 한자음을 활용한 방언(方言)으로 표기하는 방법

26) 『삼국사기』 권9 경덕왕 16년 12월.

27) 이에슬, 2015 ; 박성현, 2019 ; 전덕재, 2021.

영현		속현	
괴양군	괴산	0	
옥양군	진천군 진천읍	2	
		도서현	증평군 도안면
		음성현	음성군 음성읍
개산군	안성군 죽산면	1	
		음죽현	장호원읍 이항리
소천군	여주 흥천리	2	
		황효현	
		빈양현	양평군 양평읍
나제군	제천시	2	
		청풍현	제천시 청풍면
		적산현	단양군 단양읍
나성군	영월군 영월읍	3	
		자춘현	단양군 영춘면
		백오현	평창군 평창읍
		주천현	영월군 주천면
대륙군	천안시 목천면	2	
		순치현	천안시 풍세면
		금지현	연기군 전의면

[그림 2] 3소경 관련 군현 영속관계

물길과 물길로 촘촘히 연결시킨 것이다. 이렇게 신라는 경주와 전국 15개 농업 도시를 거점으로, 영속관계형 군현제로 구성된 전국의 수많은 소규모 광역통치 행정단위와 협업을 하여, 군현제이면서 연맹 국가 전통을 인정해 주었다.

영속현은 교통로를 감안하여 구성하였다. 가령 나성군(영월)의 경우라도 대략 25km 내외인



[그림 3] 세 고을 연결 물길과 영월군

데, 평창강과 주천강, 동강, 남한강을 주요 교통로로 하여 단독 군(郡), 단독 현(縣) 만큼은 아니지만 물길과 물길, 산길 등을 이용해서 그래도 쉽게 오갈 수 있는 범위였다.²⁹⁾

나성군(영월)만큼 물길이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영현 2곳을 둔 나제군(제천)은 물길을 중심으로 반경 25km 정도일 것이고, 영현이 없는 괴양군(괴산)도 달천 주변에 같은 규모의 영역을 소(小)규모 광역통치 단위로 운영하였을 것이다.

괴양군(괴산)은 속현없는 단독현이지만, 중원경과 서원경 연결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점에

28) 정요근, 2011 ; 이인재, 2023 ; 권순홍, 2024.

29) 우리나라의 수계에 대해서는 다음 지도가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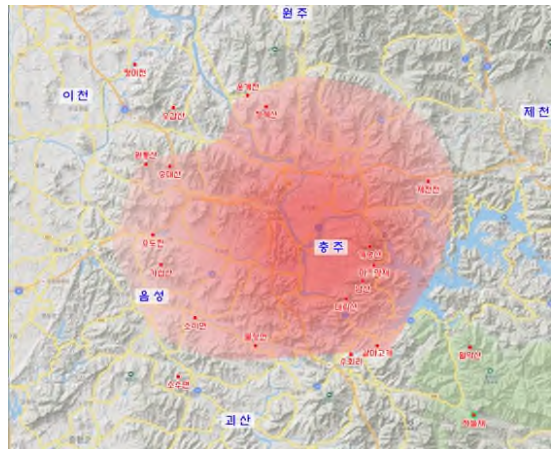
<http://www.wamis.go.kr:8081/WaterMap2013/watermap.aspx?paramTab=watermap>

Ⅲ. 6~8세기 북원경·중원경·서원경의 설치와 운영

연혁(沿革)과 강경(疆境) : 충주와 원주는 모두 고구려 땅인 국원성(國原城)과 평원군(平原郡)이었고,³⁰⁾ 청주는 백제땅인 상당현(上黨縣)이었는데, 모두 옛 고구려, 옛 백제땅이었다.³¹⁾ 그러다 565년(진흥왕26) 충주가 신라 영향권에 들면서 국원소경이 설치되었고,³²⁾ 원주는 678년(문무왕18) 북원소경이 설치되었으며, 청주는 695년(신문왕5) 서원소경이 설치되었다.³³⁾ 경덕왕(742~765) 때 작은 서울이라는 소(小)를 떼고, 각각 중원경, 북원경, 서원경으로 불렸고, 9세기 들어 신라는 당나라의 부제(府制)를 참고하여 중원부(장관 大尹, 小尹)와 중원경, ○강부와 북원경, 서원부와 서원경이라는 중규모 광역통치단위로 확대하였다.³⁴⁾



[그림 4] 네이버 지도 상 원주·충주·청주



[그림 5] 최경선 수정 중원경 강경

30) 『삼국사기』 권35 지리2 “中原京, 本高句麗國原城, 新羅平之. 眞興王置小京, 文武王時築城, 周二千五百九十二步. 景德王改爲中原京, 今忠州.” (중략) “北原京, 本高句麗平原郡, 文武王置北原小京. 神文王五年築城, 周一千三十一歩. 景德王因之, 今原州”

31) 『고려사』 권56 지리1 청주. “淸州牧 本百濟上黨縣, 新羅神文王五年, 初置西原小京. 景德王, 陞西原京.”

32) 『삼국사기』 권4 진흥왕 26년 “秋八月, 命阿滄春賦出守國原.”

33)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8년 “置北原小京, 以大阿滄吳起守之.” 685년(신문왕5) 충주와 남원이 각각 서원소경과 남원소경이 되었다. 『삼국사기』 권8 신문왕 5년 “三月, 置西原小京, 以阿滄元泰爲仕臣. 置南原小京, 徙諸州郡民戶分居之.” 『삼국사기』 권8 신문왕 9년 “閏九月二十六日, 幸獐山城, 築西原京城.”

34) 배중도, 1989.

소경의 강경은³⁵⁾ 그림 5)와 같은 남북국기 신라의 중원경 강경과 지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³⁶⁾ 현재의 강경과 그다지 차이는 없다. 견아상입지적 출입은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강경은 다시 소경 치소(治所)(평지읍성)인 읍중(邑中)과³⁷⁾ 경내(境內)로 나눌 수 있다. 근대 국가와 착각하여 치소 즉 읍중에 모든 권력이 모인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농업사회에서 치소는 후술할 읍사(소경의 경우 소경사(小京司), 주 치소의 경우 주사(州司)와 같이 행정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일 뿐이다. 이 시기 재경대등들을 전국 주요 지역에 이주시키는 것이 신라 영속관계형 군현제의 특징이므로, 육부 호민들이 소속 경내로 이주하고³⁸⁾ 상호 연락하기 위한 연결 공간으로서 소경 읍중 일정 공간에 연락처를 겸한 이주 준비기관을 두었다.

읍중 보다 중요한 공간이 경내(境內)이다. 소경의 경내는 촌락문서에서 서원경 ○○○촌과 같이, 읍중(邑中)과 함께 수많은 행정촌(村)과 자연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촌에는 재지대등들이나 촌주들이 이끄는 마을도 있었고, 어떤 마을은 재경 출신 진골 대등들이 토착화하면서 대토지소유를 하면서 거주하는 마을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 경내(境內) 거주 농민들은 양민 농민들도 있고, 천민 농민들도 있었을 것이며, 수공업자와 상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소경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문화생활도 하고, 경제생활도 하고 있었다.

소경 치소(治所, 평지읍성) : 중원경의 치소, 즉 평지 읍성과 둘레 2592보의 국원경성은 충주읍성터와 봉현성, 대림산성이었겠다.³⁹⁾ 국원성 때의 탐평리와⁴⁰⁾ 장미산성에서 이전한 것이다.

서원경의 치소, 즉 평지 읍성은 청주읍성 터로 볼 수 있고, 서원경성은 우암산성의 내성으로 생각된다.⁴¹⁾

35) 『삼국사기』 권10 애장왕 9년 춘2월 “發使十二道 分定諸郡邑疆境”

36) 최경선은 국원소경의 공간 범위를 오늘날의 충주시와 음성군·괴산군 일부로 보았다. 최경선, 2024 ; 어창선, 2025. 본문의 중원경, 서원경 치소 추정지 그림은 2025년 어창선 발표문을 재인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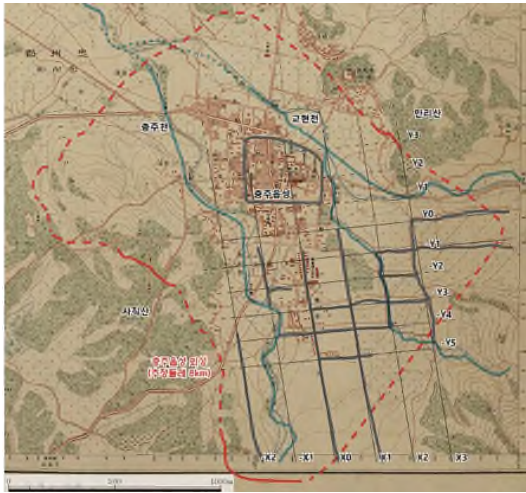
37) 읍성 내(邑城 內)가 강수 전의 읍중(邑中)이다. 『삼국사기』 권46 강수 “強首, 中原京 沙梁人也. (중략) 強首 常與釜谷治家之女 野合, 情好頗篤. 及年二十歲, 父母 媒邑中之女 有容行者, 將妻之.” 최경선, 2024.

38) 강민식, 2017.

39) 박성현, 2012 ; 황인호, 2013 ; 박달석, 2025.

4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9.

41) 노병식, 2014.



[그림 6] 중원경 치소 추정지



[그림 7] 서원경 치소 추정지

북원경의 치소(治所), 즉 평지읍성이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다.⁴²⁾ 원주 원도심지역인 강영감영과 원주읍성터로 추정될 뿐이다. 단지 북원경성(北原京城)만 둘레 1,031보(步)의 성(城)으로 나와 있다.⁴³⁾ 이 성(城)에 대해서는 평지에 있던 나성(羅城)으로 보기도 하고⁴⁴⁾ 지금의 영원산성(鵠原山城)으로 보기도 하는데,⁴⁵⁾ 『증보문헌비고』와 『대동지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영원산성의 둘레가 1,031보였다는 것을 보면⁴⁶⁾ 영원산성이 바로 북원경성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북원경성은 비상시에 사용하던 성(城)이었을 것이고, 영원산성에 오르는 주 진입로가 지금과 같이 금대리 영원사로 올라갔을 것이다.

42) 이재환, 2012.

43) 『삼국사기』 권25 지리2 北原京 “神文王五年 築城, 周一千三十一步”

44) 박태우, 1987. 박태우는 井上秀雄의 연구를 근거로 봉산, 현재 원주시 봉산동 주변 조사도 하였으나, 그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45) 차용걸, 1998, 23~24쪽.

46) 『增補文獻備考』 卷28 輿地考 16 關防4 城郭4 “原州鵠原山城 在雉岳山南麓 石築周一千三十一步 內有井一泉五” 『大東地志』 卷15 江原道 原州 城池 鵠原山城 “在雉岳山之南 新羅神文王築 高麗改築 本朝改築 周一千三十一步 井泉六 四面皆峻險”



[그림 8] 복원경 치소 추정지

소경의 치소(治所), 즉 평지읍성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읍사이다. 소경의 장관이 대등층과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촌주층과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논의하던 공간이다.

장관과 대등층과의 관계 : 소경의 장관은 사신(仕臣) 혹은 사대등(仕大等)이라고 하였다.⁴⁷⁾ 신(臣)이 곧 대등(大等)이다. 소경 통치 구조의 한 예로 복원경의 장관(知〇官)은, 17관등으로 서열화된 신라 관등제에서 9등급인 급별찬에서 4등급인 파진찬 사이의 경위(京位)에 있던 인물이 임명된 사신(仕臣 = 사대등 仕大等)이었다.⁴⁸⁾ 사대등은 대등(大等)을 사(仕)하는 존재인데, 사(仕)는 벼슬한다, 혹은 살핀다는 뜻이 있으므로, 사대등의 임무는 대등을 살피고 관리하는 일이었다.⁴⁹⁾

중앙의 외관이, 자체 ‘관반(官班)체제’를 갖춘⁵⁰⁾ 지방의 대등과 정책을 협의하여 정책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영속관계형 군현제의 특징이다. 여기서의 관반(官班)이란 관의 반차(班次) 즉 관의 높고 낮은 차례를 말하여서, 당연히 반차(班次)는 중앙정부에서만 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재지 대등층도 독자적인 관의 반차를 주체적인 입장에서 설정하여 지방 통치에 활용하고 있었다.

47) 『삼국사기』 권40 직관 하 외관 “仕臣或云仕大等五人. 眞興王二十五年始置. 位自級滄至波珍滄爲之.”

48) 『삼국사기』 권40 직관 하 외관. 복원경 초대 장관이었던 오기(吳起)는 경위 5등급인 대아찬으로 임명되었는데, 이후 복원경 장관에 대한 더 이상의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경위 5등급 정도의 인물이 이후에도 계속 장관직을 수행했을 것이다.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8년 春正月.

49) 임병태, 1967, 100~103쪽.

50) 김광수, 1972 ; 김광수, 1979 ; 김광수, 1984. 본고의 관반에 관한 내용은 세 논문을 전적으로 참고하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참고내용의 주기(註記)는 생략한다.

관할		기구		職 名				
읍사	지 ○ 관 知 ○ 官	鄉職 대등층	土官司 (司戶)	(侍中?) 上大ホ 信希 大ホ (戶長)	侍郎 興林大ホ 秀英大ホ (副戶長)	大監·弟監 (村長·村正)		
	소경사 小京司			(事審官)	大ホ	郎中 旻會 朶 金舜 朶 (戶正)	員外郎 (副戶正)	執事 (史)
읍司	주사 州司	鄉吏職 (州吏) 촌주층	兵部 (司兵)	足兵 안전		卿 (兵正)	筵上 (副兵正)	維乃 (兵史)
			倉部 (司倉)	足食 민생		卿 (倉正)		

[표 3] 읍사(읍司) 산하 향직과 향리직 (원주 사례)

북원경 장관과 협업하면서 자신만의 관반체제를 운영하면서, 정책의 방향을 정하던 재지 대등(大等)의 존재가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원주 흥법사 터에 있는 진공대사 충담의 비 음기이다. 충담이 입적한 940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세웠을 이 비의 음기에는 재가제자(在家弟子)와 삼강전(三綱典), 주관(州官)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관(州官, 원주의 관반)에는 낭중 2인과 시랑 2인과 함께 상대등(上大等) 1인이 나온다.⁵¹⁾

이 자료의 상대등은 고려 성종 2년 향직 개편 시에 호장(戶長)과 부호장(副戶長)으로 개편되는 당대등(堂大等)과 대등(大等) 가운데 당대등을 말하는데,⁵²⁾ 그렇다면 북원경에도 상대등과 함께 대등층(大等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⁵³⁾ 이들은 각각의 지역과 집안 사정에 따라 아찬을 쓰기도 하고, 대등을 쓰기도 하며, 시랑 혹은 경을 쓰기도 했다. 훗날 호정(戶正)에 해당하는 낭중은 2인, 병정(兵正)에 해당하는 병부경은 2인,⁵⁴⁾ 창정(倉正)에 해당하는 창부경 역시 3인이다.⁵⁵⁾

이들 주관(州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낭중(郎中)은 민회(旻會) 내말(朶)과 김순(金舜) 내말(朶)이고, 시랑(侍郎)은 흥림(興林) 대등(大ホ)과 수영(秀英) 대등(大ホ)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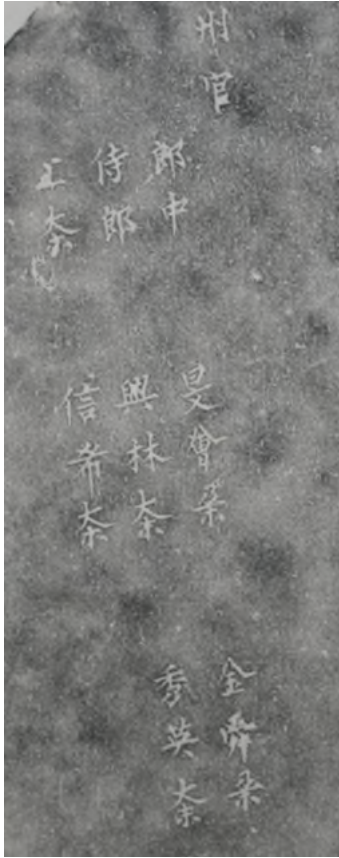
51) 하일식, 1999.

52) 『고려사』 권75 선거3 鄉職 성종 2년 “州府郡縣의 吏職을 고쳐 兵部를 司兵으로, 倉部를 司倉으로 하였으며, 堂大等を 戶長으로 大等を 副戶長으로 郎中을 戶正으로 員外郎을 副戶正으로 執事를 史로 兵部卿을 兵正으로 筵上을 副兵正으로 維乃를 兵史로 倉部卿을 倉正으로 삼았다.”

53) 김광수, 1979, 127쪽.

54) 忠式 ㉔

55) 彥書·孔律·幸 ㉔



[그림 9] 원주 관반

었다. 상대등은 신희(信希) 대등(大等)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향리직의 하나로 간주되는 낭중이 먼저 쓰이고, 시랑을 그 다음에 쓰고, 상대등을 맨 나중에 기록했다는 것이다.

낭중은 당대등과 대등·낭중·원외랑·집사 가운데의 낭중이다. 성종 2년 주부군현의 향리직 개편 때 호정(戶正)이 되는 직제로 향리직의 하나이다.⁵⁶⁾ 향리직의 하나라면 당연히 읍사에 소속되었을 것인데, 낭중은 원주의 읍사 즉 주사(州司)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다.⁵⁷⁾

문제는 시랑이다. 이 시랑은 성종 2년 향리직 개편 때에는 찾아볼 수 없다. 향리직 계통은 아니라는 뜻이다. 925년(태조8) 경북 영천지역인 고을부 장군 능문이 왕건에게 귀부할 때 휘하의 시랑 배근과 대감(大監) 명재·상술·궁식 등을 개경에 머무르게 한 기사에 보인다.⁵⁸⁾ 이 경우 대감은 촌장(村長)임이 분명하나,⁵⁹⁾ 여전히 시랑의 지위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시랑이 보이는 것은 개경의 광평성(시중·시랑·낭중·원외랑)과 서경의 낭관(시중·시랑·낭중·상사·사)이다. 그러므로 흥법사 진공대사 읍기에 보이는 시랑은 당시 재지관반도 재경관반과 마찬가지로 중앙의 광평성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지방통치에 임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⁶⁰⁾

그렇다면 자료에 보이는 상대등은 당대등으로 읽혀지는데, 당대등 역시 광평성의 시중 격이 된다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한다. 더구나 흥법사 진공탑비문을 작성한 이가 고려 태조 왕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적어도 왕건은 비 읍기에 기록된 재지관반 사호(司戶)의 시중 - 시랑 - 낭중 - 원외랑 구조가 재경관반 광평성의 구조와 똑같다는 점을 양해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만큼 관반체제는 한국중세사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⁶¹⁾

그러 태조 왕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적어도 왕건은 비 읍기에 기록된 재지관반 사호(司戶)의 시중 - 시랑 - 낭중 - 원외랑 구조가 재경관반 광평성의 구조와 똑같다는 점을 양해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만큼 관반체제는 한국중세사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⁶¹⁾

56) 『고려사』 권75 선거3 전주 향직 성종 2년. “州府郡縣의 吏職을 고쳐 兵部를 司兵으로, 倉部를 司倉으로 하였으며, 堂大等を 戶長으로 大等を 副戶長으로 郎中을 戶正으로 員外郎을 副戶正으로 執事를 史로 兵部卿을 兵正으로 筵上을 副兵正으로 維乃를 兵史로 倉部卿을 倉正으로 삼았다.”

57) 고려시대 州司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음 기록이 참고된다. 『慶尙道地理志』 慶州道 慶州府. “天福己亥(939, 태조22) 改爲安東大都護府. 邑號慶州司.”

58) 『고려사』 권1 태조 8년 동10월 기사.

59) 『고려사』 권3 성종 6년 9월. “諸村의 大監.弟監을 고쳐 村長.村正으로 하였다.”

60) 하현강, 1977, 13쪽 ; 김광수, 1979, 124쪽 ; 하현강, 1988 ; 김갑동, 1990, 154-158쪽.

61) 고대국가 이래의 전통이었던 연맹 국가의 수평적·다원적 체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대등체제, 관반체제로 만들어간 국가였기 때문에 집권적(執權的)이 아니라 집권적(集權

충주 정토사 범경 현휘승탑비 음기에 등장하는 공경(公卿)으로 불리는 지역대표자(부로, 父老)에 대한 기록도 흥미롭다.⁶²⁾ 중세사회 수령은 이서(吏胥)에 대해 군신의 분별을 가진 토주(土主)였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용어가 공경부로(公卿父老)인데, 음기에는 아찬(阿粢) 5인,⁶³⁾ 대등(大等) 6인,⁶⁴⁾ 시랑(侍郎) 10인,⁶⁵⁾ 경(卿) 12인⁶⁶⁾ 등 총 33인의 공경급 인물이 등장한다.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기에 등장하는 당대등 김희일의 경우가 또 다른 예이다.⁶⁷⁾ 김희일은 지방의 수장격인 당대등(堂大等)이면서 중앙의 위계로는 정조(正朝)이고, 공복은 단삼(丹衫)이면서, 어대는 은어대(銀魚袋)를 차고 있었다.⁶⁸⁾ 나말여초 재지관반의 수장급은 중앙의 관리로도 인정되며, 그 예하의 직은 지방이라는 단서가 있으나 역시 관반이라 칭해지고 있었다.

사실 이 철당간은 김희일의 종제인 당대등 김예종이 자신의 몸쓸 병을 부처님의 도움으로⁶⁹⁾ 극복하고자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이 주도하지 못하고 종형인 김희일이 주도하여 조성한 당간이었다. 김예종과 김희일 집안이 주리(州里) 호가(豪家)였고, 향려(鄉閭) 관족(冠族)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일을 추진한 사람들이었다.

檀越兼令	金希一	堂大等	監司	孫熙	大奈木	前侍郎
“	金守□	大等	“	慶柱洪	大奈木	前兵部卿
“	金釋希	大等	“	韓明寔	奈木	學院卿
“	金寬謙	大等	“	慶奇俊	大舍	前司倉
			“	孫仁謙		學院郎中

[표 3] 청주 관반

이 기록에 따르면 대등이 한 지역에 여럿 있다는 것이고, 대내말과 내말, 대사 등 신라 경위를 쓰는 사람들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청주지역이 고려의 영향력에 흡수된 지 45여년이 지나고, 신라가 망한지 27년이 되던 해인데도, 당간 주조의 사령탑을 맡은 사람들이 모두 신라 관계를 쓰고 있다. 이는 신라 중앙정부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고려 중앙정부가 요청한 것도 아닐 것이니, 이런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서원경, 청주 지역 재지 지배층의 오랜 역사적 관록에서 나온 것이겠다. 당간 주조의 실무 책임자까지 기록하지 않았지만, 청주에서 도운 관반들(輔州官班)이 있었을 것이다.

的) 고대국가, 중세국가로 설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62)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해당 자료

63) 張希·奉希·萱直·崔儒·新城. 아찬 중에 조금이나마 행적이 확인되는 인물이 劉新城이다. 994년(성종 13) 선대 배향공신을 정할 때, 유신성과 서필이 광종의 묘에 배향되었다. 『고려사』권3. 성종 13년 4월.

64) 崔忠·春一·崔貞·國奉·仁鏡·父奉

65) 官訓·龍[?]·堅訓·奉立·金倫·仁往·[?]儒·[?]猷·[?]明·直奉

66) [?]奉·[?]寶·崔讓·居[律]·門倫·由[信]·[必][奉]·聰讓·信興·漢[?]·[?]·金[?]

67)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해당 자료

68) 이현숙, 1992, 45쪽. 같은 단삼이라고 하더라도 중앙관직의 경우 금어대를 주고, 지방은 은어대를 주어 차별한 것이 아닌가 한다.

69) 서지민, 2024. 서지민은 당시 당간 건립 목적이 『약사경』에 서술된 속명번등법이라는 의례를 실행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

輔州官班		縣 官班	
上沙噓 元吉		上沙噓 宗侁	
第二 純侁		第二 今岳	
第三 英希		第三 主道	
寺卿村主 吉萱		村主 行悟	
		村主 能直	
		村主 宣直	

[표 4] 주 관반과 현 관반 (상주와 적아현)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에 있는 명봉사(명봉사 경천선원) 자적선사(882~939) 홍준승탑비 음기에는 939년(태조22) 이두문으로 쓰여진 첩문(帖文)이 있다. 홍준승탑비가 있는 곳은 상주 산하 예천군의 4영현 가운데 하나인 적아현이다.⁷⁰⁾

첩문의 내용은⁷¹⁾ 홍준 큰스님의 열반을 기념하여 조성될 경천선원 절터가 자리 잡을 명봉산은 큰 산이므로 절터는 특별한 지주(地主)가 없다는 것을 적아현 입경사 김달(金達) 사지(舍知)를 통해 보고하였다. 이에 태조 왕건은 교지를 내려, 일을 맡은 스님들이 호정(戶丁)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는 것을 허락하고, 주(州)와 군(郡)과 현(縣)을 막론하고 주변 열 냇고을이 추인하도록 한 다음, 정조 인겸이 성조사로서 돕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이 조처와 관련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미에 주 즉 상주(尙州)에서 도운 관반(輔州官班)과 현 즉 적아현(赤牙縣)에서 도운 관반층도 기록하였다.

상주 치소와 적아현 치소의 관반층으로 기록된 사찬은 경위 8등에 해당하는 관등명인데, 사찬이 상사찬, 제2사찬, 제3사찬으로 나뉘어 있는 점이 흥미롭다. 상주 치소에서는 사찬 지위의 여러 촌주들이 관련 군현의 사람부리는 실무책임자를 맡았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정보는 상주 소속 사찰의 재무나 보급의 책임을 맡은 촌주인 특히 상주의 관반인 사경촌주의 도움을 받았다. 경천선원이 자리할 적아현의 세 명의 촌주는 해당 실무를 담당했을 것이다. 이렇듯 당시 수장급 재지배층은 스스로의 선택과 지방 분위기에 따라 신라 관등도 쓰고, 고려 관계를 쓸 수 있었다.

이렇듯 소경의 장관이 읍사에서 대등층과 협업하며 정책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소경의 장관들이 자국의 전통과 중국 고전에 밝은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같은 입장에 있었던 수많은 대등층과, 경제와 문화, 정치와 외교를 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중앙 정부가 사용하던 관반을, 지방 대등층이 보주관반으로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양해가 가능했다. 그런 이해의 토대 속에 소경의 행정은 촌주층과 협력하면서 집행되고 있었다.

장관과 촌주층과의 관계 : 소경의 행정 실무층에 해당하는 존재로는 촌주층(村主層)이 있

70) 『삼국사기』 권34 예천군 은정현. 경덕왕 때 적아현을 은정현으로 바꾸었다고 하였으나, 첩문에는 적아현으로 나온다.

71) 남풍현, 1994.

다. 행정실무의 목표는 안전(족병, 足兵)과 민생(족식, 足食)이다. 주 치소의 촌주 조직과 운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연지사 종명과,⁷²⁾ 현치소의 촌주조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규홍사 종명이다.⁷³⁾

연지사 종명에 따르면 주 치소의 실무 총책은, 주치(州治) 전체의 사무를 관장하던 상급 촌주인 경촌주(卿村主)가 맡았다. 경촌주 산하에서 촌민(村民)들로부터 노동력, 때로는 군사력을 동원하던 직책이 작한사(作韓舍)이다. 작한사는 작상을 잇는 직책이었는데, 특별히 작한사를 맡은 촌주가 군사력동원과 직접 관련되는 군사(軍師)라는 직명을 띤 것을 보면, 해당 지역이, 군사력 동원이 상설화된 주치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주주 치소의 촌주 및 그 예하 직제는, 경촌주(卿村主) 밑에 단위 촌주로 군사(軍師)의 직책을 띤 작한사(作韓舍)와 사(史), 성박사(成博士) 등이었다. 한편 규홍사 종명에 따르면, 현 치소의 실무는 현치(縣治) 전체의 사무를 관장하던 상급 촌주인 상촌주(上村主)였다. 상촌주는 제2촌주, 제3촌주와 의논하면서 현치의 실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신라 촌락문서의 서원경 사례에서 보듯이 당시 소경이 관할하는 촌(村)이 있었다.⁷⁴⁾

72) 太和七年三月日, 菁州蓮池寺鐘, 成內節傳. 舍入金七百十三廷, 古金四百九十八廷, 加入金百十廷. 833년(흥덕왕 8년, 태화太和 7년) 3월일에 청주(菁州 = 경남 진주) 연지사종(蓮池寺鐘)이 이루어진 때의 기록이다. 도합 넣은 쇠[金]는 713정인데, 묵은 쇠가 498정이고, 더 넣은 쇠가 110정이다. // 成典和上, 惠門法師 · 惠法師, 성전(成典) 화상은 혜문(惠門) 법사(法師)와 혜해 법사이며, 上坐, 則忠法師, 都乃, 法勝法師. 상좌(上坐)는 즉충(則忠) 법사이고, 도내(都乃)는 법승(法勝) 법사이다. // 鄉村主, 三長及干 · 朱雀大梁, 향촌주(鄉村主 ; =경촌주卿村主)는 삼장(三長) 급간(及干)과 주작(朱雀) 대내말(大乃末)이고, // 作韓舍, 寶淸軍師 · 龍年軍師. 작한사(作韓舍 ; = 작대사作大舍 = 남산신성비 작상 作上 계통)는 보청(寶淸) 군사(軍師)와 용년(龍年) 군사이다. // 史六, 三忠舍知 · 行道舍知, 사육(史六 ; 사상史上 흥녕사 징효대사비)은 삼충(三忠) 사지(舍知)와 행도(行道) 사지이며, // 成博士, 安海哀大舍 · 哀大舍. 성박사(成博士)는 안해애(安海哀) 대사(大舍)와 애(哀) 대사이다. // 州統, 皇龍寺覺明和上. 이때의 주통(州統)은 황룡사(皇龍寺) 각명화상(覺明和上)이다. 청주 연지사종명(菁州 蓮池寺鐘銘) 이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금석문 통일신라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73) 大中 年丙子八月三日, 竅興寺鐘成內矣. 舍入金三百五十廷, 都合市一千五十石. 856년(문성왕18년, 대중대中 10년) 병자 8월 3일에, 규홍사 종(竅興寺鐘)을 이루었다. 들어간 놋쇠[鎳]가 350정이며, 총 가격이 1,050석이다. 利此願起在, 淸嵩法師 · 光廉和上. 願爲內等者, 種種施賜人乃, 見聞隨喜爲賜人乃, 皆無上菩提成內飛也. 처음에 이 서원誓願을 일으킨 것은 청송법사淸嵩法師와 광림화상光廉和上이다. 원한 것은 여러 가지를 베풀어주신 사람이나 <불법을> 듣고 좃아 기뻐하신 사람이나 모두 무상보리無上菩提를 이루는 것이다. 節縣令, 舍梁萱榮, 時都乃, 聖安法師. 당시 현령縣令은 함량舍梁인 흰영萱榮이며, ... 이때의 도내都乃是 ... 성안법사聖安法師 ... 이다. 上村主, 三重沙干堯王, 第二村主, 沙干龍河, 第三村主, 乃干貴瑯及干. 大匠, 大奈末梁猷 · 溫衾. 상촌주上村主는 삼중사간三重沙干인 요왕(堯王) ..., 제2촌주는 사간沙干인 용하龍河 · · ·, 제3촌주는 내간乃干 귀진貴瑯 ... 급간及干이다. 대장大匠은 대내말大奈末 양梁 온금溫衾이다. 규홍사종명(竅興寺 鐘銘) 이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금석문 통일신라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관련 자료에 대한 해제와 원문, 국역문, 참고문헌을 참고하였지만, 이 자료들의 교감과 해석은 김광수, 1979를 따랐다. 당시 김광수는 이종욱, 1974를 많이 참고하였다. 본고도 두 논문을 전적으로 참고하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참고내용의 주기註記는 생략한다.

촌락문서에는 각 현을 중심으로 여러 촌을 묶어 공무를 맡은 촌전(村典)이 실무책임을 맡은, 호구조사와 양전, 그리고 계연으로 계산한 작정(作丁)의 결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⁷⁵⁾ 마을이 살지 못하면, 고을도, 나라도 지속할 수 없다는 연방국가의 전통이 계연과 작정 실무에 담겨 있었다. 여러 촌이 묶인 사실은 규홍사 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856년(문성왕18)의 규홍사 증명에 보면, 현령 밑에 상촌주, 제2촌주, 제3촌주가 있었다.⁷⁶⁾ 이로 보아 다른 소규모 광역행정단위와 마찬가지로 소경의 행정업무도 다수의 촌주층이 담당하였을 것이고, 이들이 행정업무를 맡았을 때 소요되는 비용은 촌주위담(村主位番)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충당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3소경을 비롯한 영속관계형 군현의 장관은 대등층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행정의 방향을 정하였고, 촌주층을 동원하여 지방정부 실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통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IV. 소경에서의 경제생활과 문화생활

1. 경제 생활

소경에 사는 사람들은 1) 소경 장관과 소경 장관의 행정운동을 지원하는 촌주층 2) 진골 대등과 같이 경주에서 내려온 유력 계층들, 3) 재지 대등과 같은 지역사회 토박이 4) 소경 행정권 안에서 생활하는 여러 층위의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 생활도 즐기고 있었고, 다양한 방식의 학문도 배우고 소통하고 있었다. 이렇게 문화생활도 하고, 교육 및 학술 활동을 하려면, 그에 걸맞는 경제활동도 해야 했다.

소경 성은 보통 평지 읍성과 산성을 모두 구비하였는데, 평시에는 평지 읍성에서, 비상시에는 산성에서 생활하였다. 평상시 평지 성내에는 소경 장관과 소경 장관의 행정 및 군사를 집행하는 인력들이 주로 생활하였을 것이고, 다른 거점 지역과 마찬가지로 성내 공간을 경주 육부 이름으로 나누어, 원신라권 출신 진골 대등들이 성내 공간에 머물다가, 소경 경내로 이동하는 중간 경로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가령 강수의 경우, 강수의 선대 누군가가 원신라권인 가야 출신으로 무슨 사정이 있어 중원경 경내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먼저 중원경 평지 읍성 내 구역명칭의 하나인 중원경 사랑부 지역을 거쳐, 읍성 밖이지만 중원경 경내(境內) 농경지와 연계하여 생활근거지를 마련하였을 것이다. 충주 누암리와 하구암리 고분 피장자가 I형(대금구와 이식 공반), II형(대금구만 출토), III형(이식만 출토), IV형(대금구와 이식 미출토)으로 위계가 있었다는 점을 보면,⁷⁷⁾ 소

74) 김영관, 2022.

75) 이인재, 1994 ; 이인재, 2020.

76) 節 縣令 舍梁萱榮 時 都乃 聖安法師 上村主 三重沙干 堯王 第二村主 沙干龍河□ 第三村主 及干貴珍 大匠大奈末 馱溫衾 (窺興寺鐘銘 : 856년)

경에는 다양한 사연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전근대는 농업사회이므로, 수공업기술이 있거나, 상인이 아닌 경우 농토를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었다.

사전(賜田) : 원고구려 지역, 원백제 지역인 한주, 삭주, 명주나 웅주, 전주, 무주의 경우, 고구려나 백제가 관할하던 공유지나 국유지, 혹은 무주지인 경우, 통일 전쟁이 끝날 무렵 해당 토지 관할권은 자연스럽게 신라가 차지하게 된다. 이 경우 신라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신라 연고의 새로운 지배층에게 줄 수밖에 없다.⁷⁸⁾

문무왕 2년 국가에서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김유신과 김인문에게 사전(賜田)을 하였으며,⁷⁹⁾ 문무왕 14년 육도진골(六徒眞骨)을 9주 5소경에 출거(出居)시킨 다음,⁸⁰⁾ 신문왕 7년에는 모든 문무관료들을 대상으로 사전(賜田)을 하였다.⁸¹⁾ 당시 이들이 받은 토지는 사다함의 경우와 같이 국가가 소유하던 좋은 토지였을 수도 있지만,⁸²⁾ 대개 통일전쟁을 겪으면서 황폐화된 무주(無主) 진전(陳田)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식읍과 녹읍 : 구체적 사례는 김구해·김유신·김인문·박뉴·장보고·김주원 등에 불과하지만,⁸³⁾ 식읍도 중요한 토지 나눔 혹은 확보 제도 중의 하나였고, 수조권 분급제인 녹읍을 활용한 토지 확보책도 지배층의 토지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식읍제도와 녹읍제도가 병행했을 당시, 식읍제를 통해 조세 전반을 장악하려는 각간가(角干家)와 녹읍제를 통해 수조권 분급제를 실시하려는 신진(新進) 관료층(官僚層)의 대립이 그 것으로서,⁸⁴⁾ 96각간(角干)의 난(亂)에서 보듯이 전국 각지에 상당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⁸⁵⁾ 이 난은 신라국가 차원에서는 녹읍제의 전면적 실시로 일단락되었지만, 식읍제를 기반으로 전장(田莊)을 경영하려는 세력은 여전하였다. 839년에서 849년 사이에 김흔이 웅천주의 한 땅을, 자신의 8대조인 김인문이 식읍으로 받은 땅이라 하여, 스스로 낭혜화상에게 절터로 기증한 것을 보면,⁸⁶⁾ 국가의 조치와 상관없이 지방에서는 식읍지배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⁸⁷⁾

가령 식읍을 받은 김주원의 아들 김현창이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

77) 김종구, 2017.

78) 이인재, 1997. 이하 경제 생활 관련 내용은 위 논문에서 재인용한 것임.

79) 『삼국사기』 권 6, 文武王 2年.

80) 『삼국사기』 권 14, 職官下.

81) 『삼국사기』 권 8, 神文王 7年.

82) 『삼국사기』 권 4, 眞興王 23年 9月.

83) 『삼국사기』 권 4, 法興王 19年 ; 卷 43, 金庾信傳 下 ; 卷 44, 金仁問傳.

84) 이인재, 1995. 이와 관련해서는 또한, 서의식, 1996 참조. 필자는 앞 논문에서 녹읍의 효과와 부활이 구진골세력인 角干家와 新進 官僚層이 식읍 유지와 녹읍 실시를 둘러싼 대립의 결과라고 보았는데, 서의식은 이를 진골인 府主가 군현의 지방관과 협조하여 食邑·祿邑民으로부터 租調를 수취하고 사유재산을 경영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85) 『삼국유사』 권 2, 惠恭王.

86)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聖住寺 朗慧和尚塔碑」.

87) 이러한 식읍제 유지와 녹읍제 실시의 갈등이 신라 하대 사회변동의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을 품고 난을 일으켰는데, 난이 실패한 후 239명의 종족(宗族)과 당여(黨與)가 사로잡혀 처형되고 그 민(民)은 다른 곳으로 옮겨진 일이 있었다.⁸⁸⁾ 여기서의 종당(宗黨)은 종족(宗族)과 당여(黨與)이다. 이 중 종족(宗族)으로 간주된 대가족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지만 부변(父邊)과 모변(母邊), 처변(妻邊)을 포함하였을 것이고,⁸⁹⁾ 당여(黨與)는 무적(武的) 세력(勢力)이 중심이 된 문객(門客)이었을 것이다.⁹⁰⁾

이들 종당(宗黨)이 바로 김주원이 받은 식읍을 토대로 한 전장(田莊) 경영(經營)을 통해 보전하려는 세력들이었고, 그 민(民)은 식읍민(食邑民)이었을 것이다. 또한 장보고가 이끌었던 만인(萬人)에도 종당(宗黨)과 식읍민(食邑民)을 포함되었을 것인데,⁹¹⁾ 청해진이 해체된 후 식읍민들은 벽골군으로 옮겨졌다.⁹²⁾ 이러한 식읍지배를 토대로 전장(田莊)을 경영한 부류로 앞서 서술한 각간가(角干家)(재상가, 宰相家)가 있다.⁹³⁾

녹읍(祿邑)을 기반으로 한 전장주(田莊主)의 경우, 당여(黨與)를 가신(家臣)이라고 하였다.⁹⁴⁾ 녹읍계열(祿邑系列)의 전장주(田莊主)가 보전(保全)하려는 가족의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가 없지만, 나말여초 가족관계가 기본적으로 양측적(兩側的) 친속조직(親屬組織)을 유지했음을 상기해보면,⁹⁵⁾ 이 역시 식읍(食邑) 계열(系列)의 전장주(田莊主)와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계통은 다르지만 왕경인(王京人)인 지증이 북원경 소재의 안락사에 토지를 기증한 배경의 하나로서 ‘친당(親黨)’이 다 죽었다는 것을 근거로 짐작해보면,⁹⁶⁾ 여기서의 친당(親黨) 역시 종당(宗黨)과 같은 의미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식읍주(食邑主)나 녹읍주(祿邑主)가 종당(宗黨)과 식읍민(食邑民)·녹읍민(祿邑民)을 기반으로 전장(田莊)을 운영하고, 경우에 따라서 국가권력이나 왕권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제도를 통해 국가의 토지·농민지배권을 양여받았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기 소유토지에 식읍을 받아 공부(貢賦)를 제외한 조용조(租庸調) 삼세(三稅)를 위임받은 이들은 물론이고, 녹읍(祿邑)을 받아 전조수취권(田租收取權)만 위임받은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⁹⁷⁾

금입택 : 경주에 금입택(金入宅)이라는 호화주택을 마련해 살고 있었는데, 그 수가 무려 39개나 되었다.⁹⁸⁾ 이런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물론 경주 부근에도 있었겠지만, 각 지역에 산재

88) 『삼국사기』 권 10, 憲德王 14年 3月. 자료상의 ‘放其民’의 ‘放’은 장보고의 예와 같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진 것으로 생각된다(『삼국사기』 권 11, 文聖王 13年 2月).

89) 이기백은 『삼국사기』 권 4, 眞平王 53年 5月 기사의 “并夷九族”의 ‘九族’을 이병도의 譯註를 근거로 父族·母族·妻族이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이기백, 1974, 274쪽).

90) 노태돈, 1978.

91) 『삼국사기』 권 10, 興德王 3年 4月.

92) 『삼국사기』 권 11, 文聖王 13年 2月.

93) 『신당서』 권 220, 新羅傳.

94) 『고려사』 권 2, 太祖 17年 夏5月.

95) 노명호, 1988.

96)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鳳岩寺 智證大師塔碑」.

97) 『삼국사기』 권 11, 眞聖王 3年, “國內諸州郡 不輸貢賦”는 食邑主와 祿邑主가 국가의 租稅體系와 극단적으로 대립하였을 경우에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98) 『삼국유사』 권 1, 辰韓.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논고가 참고된다. 이기동, 1980.

되어 있었다. 가령 39개 금입택(金入宅) 가운데 우비소리(于比所里)(우비소택于比所宅)와 지택(池宅) 소유토지의 하나로서 간주되는 것이 전남 담양에 있었고,⁹⁹⁾ 북택(北宅) 청(廳)터는 강주계(康州界) 초팔현(草八縣)에 있었다.¹⁰⁰⁾

그 밖에 장사택(長沙宅)·판적택(板積宅) 등 지방지명과 관련있는 것들이 꽤 있는데, 이는 해당지역에 금입택주(金入宅主)의 소유토지가 특히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이런 경우 전장주(田莊主)는 종당(宗黨) 가운데 한 사람을 소유토지가 있는 지역의 지방관으로 부임시켜 전장(田莊) 경영(經營)을 도왔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명왕(景明王)(917~924)의 왕비를 배출한 장사택(長沙宅)의 경우, 경명왕비의 조부(祖父)인 수종(水宗) 각각(伊干)이 858년 무주(武州) 장사현(長沙縣)의 부관(副官)을 지낸 기록이 있다.¹⁰¹⁾ 그가 집안 전장(田莊)이 있는 지역의 부관을 지내면서 그 경영을 도왔을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진골대등과 재지대등 : 이러한 토지 경영 사례 중 소경과 관련 있는 주요 사례가 원주 거둔사 사례이다. 가령 879년(현강 5) 지증대사가 자신이 소유한 장(莊) 12구(區)와 전(田) 500결(結)을 안락사에 기증한 일이 있다.

遂於乾符六年 捨莊十二區 田五百結 隸寺焉¹⁰²⁾

저택 소유 : 이를 보면 전(田)은 결(結)을 단위로 전답(田畓)의 면적을 계산하였고, 장(莊)은 구區를 단위로 면적을 계산하였다. 755년에 웅천주 출신의 향덕(向德)이 자신의 불기살을 떼어 부모를 공양하자 이를 기특하게 여긴 왕이 ‘조(租) 300 곡(斛)과 택(宅) 1구(區), 구분전(口分田)약간을 주었다’고 하였고,¹⁰³⁾ 도선이 왕용에게 36구(區)의 집을 지으면 슬기로운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여 왕용이 그 말대로 집을 짓고 살아 왕건을 낳았다고 한다.¹⁰⁴⁾

이를 보면 구區는 택지(宅地)의 면적을 측량하는 단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민요술(齊民要術)』에 의하면, 택지(宅地) 1구(區)는 전(田) 70 보(步)를 말하는 것으로서,¹⁰⁵⁾ 이렇게 보면 지증이 기증한 장(莊) 12구(區)는 자신이 소유했던 840 보(步) 면적의 대저택이 된다.¹⁰⁶⁾ 북택(北宅) 청(廳)터에 백암사를 지었다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¹⁰⁷⁾ 이러한 저택은 전국 곳곳에 있었을 것이다.¹⁰⁸⁾

99)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開仙寺 石燈記』.

100) 『삼국유사』 권 3, 伯嚴寺 石塔舍利.

101) 이기동, 1980, 187-190쪽.

102)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鳳岩寺 智證大師塔碑』.

103) 『삼국사기』 권 48, 向德傳.

104) 『고려사』 世系.

105) 『齊民要術』 권 1, 種穀 第三, “昔在洛陽於宅 田以七十步之地 試爲區”(『文淵閣四庫全書』第 730冊, 730-16).

106) 중국에서도 莊은 건물을 지칭하는 용어였다(日野開三郎, 1986, 3쪽).

107) 『삼국유사』 권 3, 伯嚴寺 石塔舍利.

108) 이는 장유사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유사』 권 2, 駕洛國記, “왕후사를 파하여

(溟州가) 옛날 신라의 京師일 때에, 世達寺(지금의 興教寺이다)의 莊舍가 있었다. (莊舍가) 있는 곳은 溟州 榛李郡이다. 본사에서 僧 調信을 보내어 知莊으로 삼았다.¹⁰⁹⁾

전장 관리 : 시지(柴地)와 울지(栗枝)·좌위(坐位)와 더불어 곡물창고와 구유간, 택지, 전답으로 구성된 전장(田莊)을 관리하는 곳을 장사(莊舍)라 하였다. 장사(莊舍)의 총책임자는 장(莊)을 맡았다는 의미로 지장(知莊)이나 장임(莊任)이라고 불렀다. 세달사(世達寺)의 장사(莊舍)는 명주(溟州) 도리군(榛李郡)에 있었는데, 본사에서는 장(莊)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으로 조신(調信)을 파견하였다. 그는 이 일을 맡으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는데, 장임(莊任)을 면했을 때 사재(私財)를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창건하였다고 한다.

산림천택 소유 : 전장주(田莊主)는 이러한 저택과 함께 산림도 소유하였다. 성덕왕이 진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봄·가을에 산 가까운 곳의 주현창(州縣倉)에서 조(租) 100 석(石)과 맑은 기름 1 석(石)을 항상 공급케 함과 동시에 진여원 서쪽 6000 보(步) 가량 떨어진 곳에 시지(柴地)(떨나무숲) 15결, 울지(栗枝)(밤나무숲) 6결과 함께 좌위(坐位)(집터) 2결이 있는 곳에 장사(莊舍)를 만들어준 것이 한 예이다.¹¹⁰⁾

또한 말목장을 소유한 전장(田莊)도 있었다. 당나라에서 불법(佛法)을 공부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던 엔닌(圓仁)의 관찰에 의하면, 무주(茂州) 남쪽의 구초도(丘草島)가 제(第)3 재상(宰相)이 말을 기르던 곳이라고 하였고,¹¹¹⁾ 안도(雁島)에는 내가(內家)에서 말을 방목하는 산이 있다고 하였다.¹¹²⁾

바로 이 구초도(丘草島)와 안도(雁島)가 문무왕 9년 삼국을 통일한 후에 논공행상으로 분배한 마장(馬場) 174개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¹¹³⁾ 이와 함께 염분(鹽盆)을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¹¹⁴⁾ 이렇게 당시 전장주(田莊主)는 전국 각지에 택지와 산림지, 산림천택지를 마련하여 경영하였다.

2. 문화생활

진골대등, 재지대등층이 지방사회에서 한 역할로서는 음악과 함께 전통적인 신라의 지식과

莊으로 삼고(罷寺爲莊) 가을에 수확한 곡물을 겨울에 보관하기 위한 장소(秋收冬藏之場)와 말을 먹이고 소를 기르는 구유간(秣馬養牛之廐)으로 삼았다.”

109) 『삼국유사』 권 3,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110) 『삼국유사』 권 3, 臺山五萬眞身, “眞如院에서 서쪽으로 6,000步 가면 牟尼帖에 이르고, 古伊峴을 넘으면 柴地 15結·栗枝 6結·坐位 2結이 있는데, (이곳에) 莊舍를 創置케 하였다(創置莊舍焉).”

111)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제4, 會昌 7年 9月 6日(丘草島), 6日(雁嶋).

112)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 會昌 7年 9月 6日, “巳時에 雁嶋에 도착하여 잠시 쉬었다. 이 곳은 신라 南界에 있는 內家の 放馬하는 山으로, 가까운 동쪽에는 黃龍寺의 장(黃龍寺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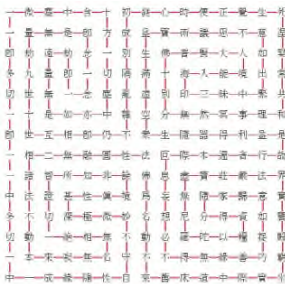
113) 『삼국사기』 권 6, 文武王 9年.

114) 한국역사연구회 편, 1996, 「대안사 광자대사비」.

기술과 지역사회 고유의 지식과 기술을 교통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가령 원주에는 비마라사가 있다. 일연 스님은 자신이 저술한 『삼국유사』에서, 의상이 열 곳의 절로 하여금 불교를 전하게 하였는데, 태백산 부석사와 원주의 비마라사, 가야산 해인사, 비슬산의 옥천사, 금정산 범어사, 남악산 화엄사가 그곳이라는 것이다.¹¹⁵⁾

일중일체다중일—中一切 多中—//하나 속에 모두 있고, 모두 속에 하나 있어
 일즉일체다즉일—卽一切 多卽—//하나가 모두이고, 모두가 하나이네.
 일미진중합시방—微塵中 舍十方//하나의 티끌 가운데, 온 우주를 머금었고
 일체진중역여시—一切塵中 亦如是//날날의 티끌에도, 모두 다 그러하네.

의상 스님은 한국식 화엄인 해동 화엄을 연 스님이다.¹¹⁶⁾ 의상 스님의 대표작인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에는¹¹⁷⁾ 위와 같은 글이 있다.¹¹⁸⁾ 개체(일, 一)와 전체(다, 多)가 서로 융합하여 결림이 없는(상즉상입, 相卽相入) 관계라는 것으로, 미미해 보이는 티끌도 우주적 존재이고, 우주도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668년 7월 15일 중국 당나라에 유학 중인 44살의 의상 스님이 수십만 자의 화엄경을 210자의 화엄일승법계도로 정리하면서, 하나의 티끌에도 온 우주가 머금어져 있다는 한국 전통 사상을 기준 삼아 화엄경 가르침을 요약했다는 것인데, 이런 불교 철학과 신앙의 거점을 전국 10곳에 마련하면서, 원주(북원경)도 그 중의 하나로 두었다.



[그림 10] 화엄일승법계도

원주 남쪽, 남한강이 남류하다가 북류로 바뀌던 그곳에 있었던 원주 비마라사가 해동 화엄을 알리고 있었다면, 원주 북쪽 남한강과 섬강이 만나는 곳을 둘러싼 고달사와 흥법사에서는 유명한 선종 스님이었던 유학과 현욱 스님(787~837)과 국내파 염거 스님(?~844)이 한국형 선종 공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후일 두 스님의 학풍을 계승한 심희 스님(854~923)은 중국 유학에의 필요성을 묻는 후학 스님들에게 “선종禪宗은 이미 동류東流 하였는데, 무슨 이유로 중국 유학을 갈 것인가, 나는 이미 해목학풍에서 그 경지를 접할 수 있었다(自達摩付法 惠可傳心 禪宗 所以東流 學者何由西去 貧道 已□□目 方接芳塵)” 고 자부하고,¹¹⁹⁾ 제자 자적 홍준(882~939)에게 “조사에서 조사로 서로 전하여 저 백암에게 전해져 우리 동해에 이르렀으니, 단절되지 않게 하여 그도를 더욱 아름답게 해 왔다(天竺傳心之祖 善檻達摩大師 東入中華 □□□□ 直至曹溪之祖 祖

115) 『삼국유사』 권4 義湘傳教, “湘乃令十刹傳教 太伯山 浮石寺·原州 毗摩羅·伽耶之海印·毗瑟之玉泉·金井之梵魚·南嶽華嚴寺 等 是也” 이인재, 2016.
 116) 권탄준, 2009.
 117)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화엄일승법계도)
 118) 김재범, 2014, 184쪽.
 119)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鳳林寺 眞鏡大師塔碑」.

祖相傳 傳彼百巖 達于東海 不令斷絕 其道彌善” 고 현욱과 이관의 학풍을 설명하였다.¹²⁰⁾

원주 흥법사 충담스님의 비문을 직접 지었던 고려 왕건 태조가, 943년(태조 26)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고려 국가 통치 원칙의 대강(大綱)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당나라 풍을 존중하여 문물예약이 모두 당제를 준수해 왔는데, 풍토도 다르고 인성도 다르니(殊方異土)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다(不必苟同)” 고 설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¹²¹⁾ 북원경 원주의 해동 화염과 불법 동류에 대한 깊은 공부가 있었다.

각 소경 사람들이 누린 문화적 활동에 불교 철학과 불교 신앙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신라는 551년(진흥12) 가야의 궁중 악사였던 우륵(于勒)을 충주에 안치(安置)시킨 후, 신라인인 대나마 주지(법지)와 계고, 대사 만덕 등을 보내어 가야금 공부를 시킨 일이 있었다.¹²²⁾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신라 출신 3인이 우륵이 원래 가르쳐 준 열 한 곡을 배웠는데, 신라인이 듣기에는 원 노래 열 한 곡이 너무 번잡하다고 하여 다섯 곡으로 줄이니, 이에 우륵이 반발하였다가, 실제 다섯 음률을 듣고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경주에 거주하던 일부 인사들은 신라 출신들이 연주한 곡들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가야에서 나라를 망친 음악이라는 것이다. 이에 진흥왕이 직접 의견 조율에 나서서 가야가 망한 것은 가야왕의 문제이지 음악 때문이 아

120) 이인재, 2016.

121) 『고려사』 권2 태조 26년 4월. “其四曰 惟我東方 舊慕唐風 文物禮樂 悉遵其制 殊方異土 人性各異 不必苟同 契丹是禽獸之國 風俗不同 言語亦異 衣冠制度 慎勿效焉”

122) 『삼국사기』 권32 樂 “나고기(羅古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야국(加耶國) 가실왕(嘉悉王)이 당(唐)나라의 악기를 보고 [가야금을] 만들었다. 왕이 이르기를, ‘여러 나라의 방언(方言)이 각기 다르니, 성음(聲音)을 어찌 통일시킬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곧바로 악사(樂師)인 성열현(省熱縣) 사람 우륵(于勒)에게 명령하여 12곡을 만들게 하였다. 후에 우륵은 그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악기를 지니고 551년(진흥왕12) 신라 진흥왕(眞興王)에게 투항하였다. 왕은 그를 받아들여 국원(國原)에 안치(安置)하였다. 552년(진흥왕13) 곧이어 대나마(大奈麻) 주지(注知)와 계고(階古), 대사(大舍) 만덕(萬德)을 보내 그 음악을 전수받게 하였다. 세 사람이 12곡을 전수보고서,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번잡하고 음란하며 우아하고 바른 음악이라 할 수 없다.’ 라고 하고는 마침내 축약하여 5곡으로 만들었다. 우륵이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노하였으나, 다섯 가지의 음곡(音曲)을 듣고서는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즐거우나 방탕하지 않고 애처로우나 비통하지 않으니, 바른 음악이라 할 만하구나! 너희들은 그것을 왕 앞에서 연주하라.’ 라고 하였다. 왕이 그 [음악] 연주를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간언(諫言)하는 신하가 의견을 내어 아뢰기를, ‘가야에서 나라를 망친 음악이니, [그 음악은] 죽히 취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가야왕이 음란하여 스스로 멸망한 것이지, 음악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대개 성인(聖人)이 음악을 만든 것은 인정(人情)에 연유하여 법도(法度)를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나라가 잘 다스려짐과 어지러워짐은 음조(音調)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다. 마침내 [그것을 널리] 연주하게 하여 대악(大樂)으로 삼았다.” “羅古記云 ‘加耶國 嘉實王 見唐之樂器而造之 王以謂諸國方言各異聲音 豈可一哉 乃命樂師省熱縣人于勒造十二曲 後于勒以其國將亂 携樂器投新羅 眞興王 王受之 安置國原 乃遣大奈麻注知·階古·大舍萬德傳其業 三人既傳十一曲 相謂曰 此繁且淫 不可以爲雅正 遂約爲五曲 于勒始聞焉而怒 及聽其五種之音 流淚歎曰 樂而不流 哀而不悲 可謂正也 爾其奏之王前 王聞之大悅 諫臣獻議 加耶亡國之音 不足取也 王曰 加耶王淫亂自滅 樂何罪乎 蓋聖人制樂 緣人情以爲擗節 國之理亂不由音調 遂行之 以爲大樂’ 『삼국사기』 권4 진흥왕 12년 3월, 진흥왕 13년.

나라고 강력 변호하였다. 그 결과 우륵의 음악이 신라에 널리 통용될 수 있었다.

가야 음악만이 아니었다. 가야 춤도 충주에 전승되었다. 가령 668년(문무왕8) 왕이 충주를 지나갈 때, 국원경의 장관 용장이 왕을 위한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에서 15살 먹은 능안이라는 젊은이가 가야 춤을 추어 문무왕을 기쁘게 하였다고 한다.¹²³⁾

이렇게 가야금과 가야춤이 국원소경이 있었던 충주가 중심이 되어 신라에 퍼졌다면, 거문고는 남원소경이 있던 남원을 중심으로 신라에 퍼졌다.

고구려 사람 왕산악이 만든 곡조 1백여곡은 신라출신 옥보고가 지리산 운상원에서 연구하여 30곡으로 신라인에 정서에 맞는 변주곡을 만들었고, 이 곡이 속명득과 귀금에게 이어져 나왔지만 지리산에 국한되어 곡이 연주되어 신라에 퍼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신라왕이 이찬(伊滄) 윤흥(允興)을 남원경의 장관으로 임명하여 고구려 계통의 악곡을 전수받고자 하였다. 윤흥이 남원 출신 안장과 청장을 선발하여 귀금에게 보내 거문고 악곡을 공부시켰으나 중요한 부분은 3년이나 지나는 동안에도 수업을 받지 못했다. 이에 남원경 장관이었던 윤흥이 처와 함께 부부가 직접 귀금을 찾아가 호소한 결과 전체 악곡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¹²⁴⁾

123) 『삼국사기』 권6 문무왕 8년 “10월 25일 왕이 나라로 돌아오며 육돌역(禡突驛)에 다다랐는데, 국원(國原) 사신(仕臣)인 용장(龍長) 대아찬이 사사로이 잔치를 벌여 왕과 여러 시종하는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음악이 시작되자 나마 긴주(緊周)의 아들 능안(能晏)은 나이가 15살인데 가야의 춤을 추어 바쳤다. 왕은 용모와 거동이 단정하고 아름다움을 보고 앞으로 불러 등을 어루만지며 금잔으로 술을 권하고 폐백을 꽤나 후하게 내려 주었다.” “二十五日王還國次禡突驛國原仕臣龍長大阿滄私設筵饗王及諸侍從及樂作奈麻緊周子能晏年十五歲呈加耶之舞王見容儀端麗召前撫背以金盞勸酒賜幣帛頗厚”

124) 『삼국사기』 권32 樂 “현금(玄琴)의 제작에 대하여 신라고기(新羅古記)에는 “처음에 진(晉, 265-420)나라 사람이 칠현금(七絃琴)을 고구려에 보냈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비록 그것이 악기인 줄은 알았으나 그 성음(聲音)과 타는 법을 알지 못하여 후한 현상금을 내걸고 나라 사람 가운데 그 음을 알아서 능히 연주할 수 있는 자를 구하였다. 이때 제2상(第二相) 왕산악(王山岳)이 그 본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약간 제작 기법[法制]을 고쳐 만들고, 아울러 1백여 곡을 지어 연주하였다. 이때에 검은 학이 와서 춤을 추었으므로 마침내 현학금(玄鶴琴)이라 이름하였다가 후에 단지 현금(玄琴)이라 불렀다.” 라고 하였다.// 신라 사람 사찬(沙滄) 공영(恭永)의 아들 옥보고(玉寶高)가 지리산 운상원(雲上院)에 들어가 50년 동안 현금을 배우고 스스로 새로운 가락 30곡을 지어 속명득(續命得)에게 전수하였다. 속명득은 귀금선생(貴金先生)에게 전수하였는데, 귀금선생 역시 지리산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신라왕이 현금 타는 법이 끊길까 우려하여 이찬(伊滄) 윤흥(允興)에게 편의껏 그 음을 전수받으라 이르고, 마침내 남원(南原)의 공사(公事)를 맡겼다. 윤흥이 [남원의] 관아(官衙)에 도착하여 총명한 소년 두 명, 즉 안장(安長)과 청장(淸長)을 선발하여 지리산에 들어가 현금을 배우도록 하였다. 귀금선생이 그들에게 [현금을] 가르쳐주면서도 그 은미(隱微)한 것을 [숨기고] 전수하지 않았다. 윤흥이 부인과 함께 나아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저를 남원에 보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생의 기예(技藝)를 전수받고자 함인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선생께서는 [은미한 것을] 숨기고 전수하지 않으셨으니 제가 임금께 복명(復命)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윤흥이 [두 손으로] 술을 받들어 올리고, 부인은 술잔을 잡고 무릎을 꿇고 나아가 예의와 정성을 극진히 하였다. 이런 연후에 그가 숨겼던 표풍(漂風) 등 3곡을 전수하였다. 안장이 그의 아들 극상(克相)과 극종(克宗)에게 전수하였고, 극종이 7곡을 지었다. 극종 후에 현금으로써 자기의 업으로 삼은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玄琴之作也, 新羅古記云 ‘初晉人以七絃琴, 送高句麗, 麗人雖知其爲樂器 而不知其聲音及鼓之之法, 購國人

그런데 이찬 윤홍이 866년(경문왕6) 동생들과 반역에 나서는 것을 보면 이 기록에 나오는 신라왕은 아마도 경문왕이나 혹은 헌안왕이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신라인인 옥보고와 속명득, 귀금으로 전래되는 기간을 한 세대 30년 총 90년으로 잡아도 776년, 그렇다면 고구려가 멸망한 후 100여년간은 고구려 출신이 직접 거문고 악곡을 계승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이 기록과 앞서 685년(신문왕 5년) 여러 주군(州郡)의 민호(民戶)를 남원소경에 나누어 거주케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남원으로 사민된 민호 중에는 고구려 유민이 있었을 것이고, 신라의 통합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백제 유민 역시, 남원으로 사민된 사람들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북원경에 적용해 보면 북원경에도 원주 토착세력과 경주 출신 이주 세력들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계 유민들도 옮겨와 거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하여 원주의 토착세력인 원주 원씨의 시조를 고구려 계통의 원경에 대고 있는 것은,¹²⁵⁾ 신라 통일기 원주에 고구려 유민들이 거주하면서 생긴 이야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무왕에게서 문장(文章)으로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은 강수(強首)가 중원경 사랑인 출신으로,¹²⁶⁾ 충주에서 스승을 모셔 효경과 곡례, 이아, 문선 등과 같은 주요 교재를 공부하고, 정식 혼례가 아닌 자유 연애 방식으로 같은 지역에 사는 대장장이 딸과 첫 결혼을 했음에도, 후일 경주에서 당나라 외교 문서를 해설해 주고, 당 황제의 조서에 감사하다는 회답의 표문을 짓는 등,¹²⁷⁾ 국가 규모에서 활동을 하였다. 소경에서 공부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전국구를 활동해도 장애 요인이 없었다는 것이 당시 소경의 교육 수준이었다. 이로 보면 통일 전·후기 신라 전국 각지에서 지식과 기술의 교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고 아마도 이런 전파의 중심에는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진골 대등층이 있었을 것이다.

能識其音而鼓之者，厚賞。時，第二相 王山岳 存其本樣，頗改易其法制而造之，兼製一百餘曲以奏之，於時玄鶴來舞，遂名玄鶴琴，後但云玄琴。羅人沙浪恭永子 玉寶高，入地理山雲上院，學琴五十年，自製新調三十曲，傳之續命得，得傳之貴金先生。先生亦入地理山，不出。羅王 恐琴道斷絕，謂伊浪允興，方便傳得其音，遂委南原公事。允興到官，簡聰明少年二人，曰安長·清長，使詣山中傳學。先生教之 而其隱微不以傳。允興與婦 偕進曰 吾王遣我南原者，無他欲，傳先生之技，于今三年矣。先生有所秘而不傳，吾無以復命。允興捧酒，其婦 執盞膝行 致禮盡誠，然後 傳其所秘飄風等三曲。安長傳其子克相·克宗，克宗制七曲。克宗之後，以琴自業者非一二，所製音曲有二調，一平調，二羽調，共一百八十七曲，其餘聲遺曲，流傳可記者無幾，餘悉散逸，不得具載”

125) 원인식 편, 1986.

126) 현재 지명으로는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장명부락에 해당되며 1895년 이전에는 청주군에 속했던 장지역에서 만든 기와가 청주 상당산성에서 사용되었는데, 장지역을 서원경 사랑부 소속이라고 한 것을 보면, 소경 지역에도 경주와 같이 6부가 있었을 것이다. “사랑부에 속한 장지역에서 올려 보냄, 沙梁部屬長池駟升達” (청주 상당산성 출토 기와 명문) 이제준, 1981 ;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2 ; 전덕재, 2002 ; 전덕재, 2011. 한편 하일식은, 소경은 작은 왕경으로, 소경의 6부명은 왕경을 본 딴 행정구역 6부가 아니라, 왕경인이 가지고 나간 部名이 이식된 것으로 보았다. 하일식, 2011.

127) 『삼국사기』 권46 강수 “強首 中原京 沙梁人也 父昔諦奈麻 (중략) 遂就師讀孝經·曲禮·爾雅·文選 所問雖淺近 而所得愈高遠 魁然爲一時之傑 遂入仕歷官 爲時聞人 (중략) 強首 常與釜谷治家之女 野合 情好頗篤 及年二十歲 父母 媒邑中之女 有容行者 將妻之(중략) 及太宗大王即位 唐使者至 傳詔書 其中有難讀處 王召問之 在王前 一見說釋 無疑滯 (중략) 使製迴謝唐皇帝詔書表 文工而意盡”

V. 9~10세기 중규모 광역통치단위로서의 부(府)와 소경(小京)

신라는 808년(애장왕 9) 전국의 9주와 3도¹²⁸⁾ 방면에 군읍(郡邑)의 영역을 점검하는 사신을 파견하여,¹²⁹⁾ 군읍(郡邑), 즉 한 개의 군에 몇몇 현을 묶은 소규모 광역행정단위, 영속관계형 군현제 운영 성과를 검토하였다.¹³⁰⁾ 검토 결과는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등 소경 지역에, 국한된 중규모 광역행정단위의 시범 운영이었다.¹³¹⁾ 북원부, 중원부, 서원부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등장이자, 군읍이 아닌 경읍(京邑)의 확장이다.¹³²⁾

충주(중원경)과 중원부		청주(서원경)과 서원부		원주(북원경)과 북원부	
괴주桴州	괴산	연산군燕山郡	청주 문의면	영월군寧越郡	영월
장연현長延縣	괴산 연풍면	목주木州	천안 목천	제주堤州	제천
음죽현陰竹縣	음성 음죽	진주鎭州	진천	평창현平昌縣	평창
음성현陰城縣	음성	전의현全義縣	세종 전의면	단산현丹山縣	단양
청풍현淸風縣	제천 청풍면	청천현淸川縣	괴산 청천면	영춘현永春縣	영춘
		도안현道安縣	증평 도안면	주천현酒泉縣	주천
		청당현靑塘縣	괴산 청안면	황려현黃驪縣	황려
		연기현燕岐縣	연기 연기리		
		회인현懷仁縣	보은 회인면		

[표 5] 3소경小京과 3부府 (고려사 지리지의 충주, 청주, 원주 속현)

신라가 소경 지역에 부제를 실시할 수 있었던 명분은 당나라의 5부5경제였다. 당나라는

128) 기무라 마코토는 3도를 “淸江道” “淸西道” “王畿” 로 보았고, 배중도는 패강도(=패서도), 왕기와 함께 또 다른 한산주(=북한산주)로 보았다. 木村誠, 1979 ; 배중도,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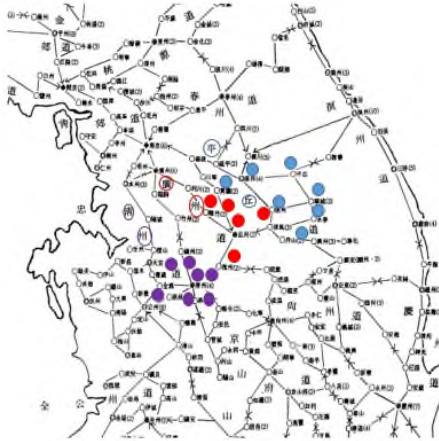
129) 『삼국사기』 권10 애장왕 9년 춘2월 “發使十二道 分定諸郡邑疆境”

130) 그 결과 전국은 9주 5소경 115군 286현(소수 파견현 85, 현령파견현 201)과 패강진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을 것이다. 『삼국사기』 권 직관하 외관 “都督九人 (중략) 仕臣或云仕大等五人 (중략) 郡大守 百十五人 (중략) 少守或云制守八十五人 (중략) 縣令二百一人 (중략) 淸江鎭典 頭上大監一人”

131) 배중도, 1989. 필자는 ○江府를 이해의 편의를 위해 북원부로 부른다. 황선영, 1994 ; 윤경진, 2000.

132) 興德王三年, 爲固城郡大武, 尋拜中原大尹, 俄轉武州都督. 所臨有政譽 (『삼국사기』 권44 김양, 828년) // 有晉 高麗 中原府故開天山 淨土寺教諭法鏡大師慈鑑之塔碑銘并序 // 西原部 小尹 奈末 金遂宗 聞奏 奉勅(新羅 寶林寺 北塔誌, 870년) // □□□□江府 月巖山 月光寺 詔諭圓朗禪師大寶禪光靈塔碑 (朝請郎 守錦城郡太守 賜緋魚袋臣 金穎 奉 教撰, 890년)

713년(개원 원년),¹³³⁾ 723년(개원 11년),¹³⁴⁾ 757년¹³⁵⁾ 등 40여년간 3차례에 걸쳐 5경에 5부를 설치하였다. 당나라 현종이 즉위하면서 수도 행정의 권위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였다. 805년(애장왕 6) 신라는 중국 당나라 율령 형식을 빌려 쓴 공식(公式) 20여조를 반포한 바 있는데,¹³⁶⁾ 이 시기에 이미 신라는 당나라 5부 5소경제를 변경한 5부 5소경제를 기획했을 것이다.



[그림 11] 3부3소경과 속현

그런데 당나라와 달리 영토가 작은 신라에서 3부 3소경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북원부·중원부·서원부 강경(疆境)이 맞닿게 된다는 것이다. 북원경과 중원경이 맞닿은 것과는 또 다른, 3부 3소경 벨트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시행했던 신라 정부는, 이 정책이 3부 3소경 벨트에 흩어져 살던 경주 출신의 진골대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 신라 전성시대 서울 인구가 17만 8936호, 거의 90만명이나 될 수 있었던 것도 5부 5소경 정책의 효과일 수 있다.¹³⁷⁾

그런데 일연스님이 ‘염불하는 스님’ 이야기를 수록한 기록에, 스님의 염불하는 목소리가 하도 낭랑해서 성안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다고 하면서, 당시 도성 안 규모는 1천360방 가운데 360방이라는 정보를 기록해 두었다.¹³⁸⁾ 나머지 1천방은 도성 밖에서 찾아도 된다는 것이다. 5부 5소경 소속 치소 공간이 각각 대략 200방씩 모두 1,000방이었다고 간주한다면, 당시 경중(京中)이란 왕도와 5부 5소경을 모두 포함한 것일 수 있다.¹³⁹⁾ 이렇게 군읍(郡邑)과 경읍(京邑)을 굳이 구별할 만큼 당시 신라를 이끌던 골품 관료들의 생각은 고무하였다.

정작 3경3소경 벨트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이들은 진골대등이 아니라 이미 지역마다 자체 관반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재지관반들이었다. 실제 3부 3소경 벨트라는 신세계를 경험한 재

133) 『舊唐書』 권8 현종 개원원년 12월 “雍州爲京兆府 洛州爲河南府 長史爲尹 司馬爲少尹”

134) 『구당서』 권8 현종 개원11년 춘정월 “改竝州爲太原府 官吏補授 一準京兆·河南 兩府”

135) 『구당서』 권10년 숙종 2년 12월 “改蜀郡爲南京 鳳翔府爲西京 西京 改爲中京 蜀郡改爲成都府 鳳翔府官僚 竝同三京名號”

136) 『삼국사기』 권10 애장왕 6년 8월 “秋八月 頒示公式二十餘條”

137) 『삼국유사』 권1 진한 “新羅全盛之時 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里 三十五金入宅” 이병도는 신라 전성시기를 현강왕(875~886)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병도, 1959.

138) 『삼국유사』 권5 염불사 “寺有異僧不言名氏 常念弥陀 聲聞于城中 三百六十坊 十七萬戶 無不聞聲”

139) 하일식, 2011.

지관반들은 나말여초 사회변동이 생기자,¹⁴⁰⁾ 곧바로 후삼국 건국으로 신라를 궁지로 몰았다. 신라를 재건하려던 5부 5소경제가 오히려 신라를 고려로 전환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VI. 맺음말

삼국간 통일전쟁을 겪는 와중에 엄청난 인구의 유동과 막대한 농토의 피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인구 유동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이전의 고구려 사람, 백제사람이 모두 신라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남북국기 신라가 원 삼국 사람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중국제도와 한국제도를 섞어 쓰는, 당이상잡(唐夷相雜)을 활용한 이유였다. 그 결과 본질은 다르지만 형태는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의제적(擬制的) 중국식 군현제, 의제적 중국식 관료제 등이 역사에 등장할 수 있었다.

중국식 의제적 제도가 활용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원효의 아들, 설총의 문자혁명이 있었다. 설총은 『역경(易經)』·『서경(書經)』·『시경(詩經)』·『예기(禮記)』·『춘추(春秋)』·『효경(孝經)』·『논어(論語)』·『맹자(孟子)』·『이아(爾雅)』 등 중국의 주요 고전,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등의 중국의 주요 역사책, 주요 문학서,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활약했던 여러 학자들의 저술(諸子百家)과 산술서算術書 등을 한국식 한자(方言)로 읽을 수 있게 이두의 표준화 작업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풍속과 물품 등을 우리나라 음(方音)으로 읽을 수 있게 해 주었다.

문자혁명의 결과 교육혁명도 할 수 있었다. 이전의 골품관료 외에 말 그대로 국가가 제시한 주요 교재를 익혀 실력만으로 국학을 졸업한 문적자(文籍者)와 해당 주요 교재를 집에서 익힌 가학자(家學者)도 문적자(文籍者)와 같은 대우를 하여, 말 그대로 중상층 실무관료층을 대거 마련할 수 있었다. 지방제도 개혁은 설총의 문자혁명과, 그에 동반된 교육혁명으로 양성된 실무관료층 덕분에 가능한 사건이었다.

물길과 물길이라는 교통로로 엮어진 지방제도 개혁은 경주와 9주 5소경이라는 전국 15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실행되었다. 경덕왕대 전국 450여 곳의 군현을, 영속관계(領屬關係)로 묶은 소규모광역통치단위로 운영한 것이었다.

소규모광역통치단위로 묶은 이유는, 고려가 본관제를 활용하여, 삼한공신이라 하여 전국의 주요 가문의 대표를 개성에 모아 거버넌스(의사결정조직)를 만드는 방법과 달리, 이미 5백년에 걸쳐 형성된 원신라 지역 출신 지배층(진골대등)을 전국에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국분산 정책의 중심에 외관제가 있었을 것인데, 백여곳의 외관 파견 지역 가운데, 신라 정부의 지방제 개혁, 곧 원신라 지역 출신 지배층의 전국 분산에 핵심 역할을 한 곳이 핵심

140) 이인재, 2010.

교통 거점에 위치한 신라의 작은 서울, 곧 5소경이었다.

특히 원고구려 지역의 원주와 충주, 원백제 지역의 청주와 남원 등 4소경 지역이 중요했다. 고구려와 백제가 관할하던 수많은 국유지와 공유지, 그리고 두 지역 통치에 전념했을 고구려 지방 인재, 백제 지역 인재들의 공백을 신라가 메꿀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신라는 가야연맹체의 핵심 거점이었던 김해를 금관경으로 운영해 본 경험이 있었다.

소경의 장관은 사대등이다. 사대등은 대등(大等)을 사(仕)하는 존재인데, 사(仕)는 벼슬한다, 혹은 살핀다는 뜻이 있으므로, 사대등의 임무는 행정실무를 맡은 촌주층과 함께 대등을 살피고 관리하는 일이었다.

소경의 경내(境內)는 읍중과 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읍중, 즉 읍성 내에는 소경 장관과 행정실무를 맡은 촌주층, 그리고 읍중을 거쳐 경내 여러 마을로 옮겨 갈 재경 출신 진골대등들이 살고 있었다. 경내에서 제작한 여러 수공업 물품들이나 생활용품들이 주로 소비되는 곳이 읍중이었을 것이다.

경내의 여러 마을에는 재경출신 진골대등과 재지대등들이 농업경영을 하면서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재경출신 진골대등들은, 원백제, 원고구려 지역에서 백제나 고구려가 관할하던 국유지나 공전들을 사전(賜田)을 통해 나누어 받았고, 이에 더해 전통적인 식읍과 녹읍, 그리고 전장을 통해 마을 한 곳이나 여러 마을에 걸쳐 대토지소유와 경영을 하였다.

이들의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불교계를 지원해 해동화엄이나 불법동류를 이끄는 후원자가 되기도 하였고, 음악이나 춤, 학문을 융성케 하기도 하였다. 전국에 화엄십찰을 건립한 다거나 주요 지역의 선종 사찰이 활성화된 것도 이들의 후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원주 남쪽에는 화엄십찰의 하나인 비마라사가 있었고, 북쪽에는 흥법사와 고달사가 있어 새로운 선종 문화의 산실이 되기도 하였다. 충주의 우륵과 남원의 옥보고 같은 가야와 고구려 음악을 새롭게 해석한 음악가들이 등장하고, 강수와 같은 지식인들이 활약하기도 하였다.

674년(문무왕14) 진골 출신 육도진골(六徒眞骨)들을 9주의 치소(治所)와 5소경에 이주시키면서, 별칭관명(別稱官名)을 쓰도록 했다는 점에 주목하면, 신라 정부의 정책기본은 진골 귀족조차 9주와 5소경에 강제로 옮겨 일종의 향직(鄉職)에 봉사케 하는 것이었다. 초기엔 서울로 돌아가자는 생각이나 서울생활과의 비교 때문에 96각간의 난 등이 일어났으나, 점차 전국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재지세력이 되어 버렸다.

9세기 이후, 소경의 경내가 주변 군현들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부제(府制)의 실시, 내용적으로 재지세력의 독자성을 확대하고, 경주의 간섭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소규모 광역통치단위에서 중규모 광역통치단위로의 전환이었다. 그리고 실제 역사의 방향은 재지세력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고려 현종대 중규모 광역통치단위로 실현되었다. 신라의 작은 서울이라는 5소경 지역에 9세기에 등장한 부제(府制)는 신라국가의 지속적인 지방통치 염원과 달리, 고려왕조로의 교체의 디딤돌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끝).

투고일: 2025.10.22, 심사개시일: 2025.11.17, 게재확정일: 2025.12.17.

【참고문헌】

(사료)

- 『三國史記』
- 『三國遺事』
- 『高麗史』
- 『三國志』
- 『齊民要術』
- 『舊唐書』
- 『入唐求法巡禮行記』

(국문)

- 강민식, 2017, 「신라서원경의 위치와 범위」, 『중원문화연구』25.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9, 『충주 탑평리유적(중원경 추정지) 발굴조사보고서』.
- 권순홍, 2024, 「신라 중·하대 전국도로망과 지역 네트워크」, 『중원문화연구』 33.
- 권탄준, 2009 「해동화엄의 실천적 전개」 『불교연구』30.
- 김갑동, 1990 , 『나말여초의 호족과 사회변동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광수, 1972, 「羅末麗初의 地方學校 問題」, 『한국사연구』7.
- 김광수, 1973, 「고려태조의 삼한공신」, 『사학지』7.
- 김광수, 1979, 「羅末麗初의 豪族과 官班」, 『한국사연구』23.
- 김광수, 1984, 「高麗 官班體制의 變化와 兩班戶籍 整理」, 『역사교육』35.
- 김광수, 1996 「신라광명 대등의 속성과 사적 추이」, 『역사교육』59.
- 김방한, 1983, 『한국어의 계통』, 민음사.
- 김영관, 2022, 「신라촌락문서의 서원경과 촌락의 위치」, 『한국고대사탐구』22.
- 김재범, 2014, 「화엄일승법계도와 ‘한’사상」 『한국학논집』57.
- 김종구, 2017, 「충주지역 누암리·하구암리 고분의 위계 분석」, 『신라사학보』40.
- 남풍현, 1994, 「고려 초기의 첩문과 그 이두에 대하여- 예천 명봉사 자적선사비의 음기의 해독」, 『고문서연구』5.
- 노명호, 1988, 「羅末麗初 親族組織의 변동」, 『우인김룡덕박사정년기념 사학논총』. 우인김룡덕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간행위원회.
- 노병식, 2014, 「신라 서원술성·서원경성의 성격」, 『문물연구』25.
- 노태돈, 1978 「羅代의 門客」, 『한국사연구』 21·22합집.
- 박달석, 2025, 「고고학적 성과로 본 통일신라 지방도시」, 『북원경과 중원경의 의미와 역사』 (원주시충주시 공동학술대회, 고대도시 : 북원경과 중원경).

- 박성현, 2012, 「신라 통일기 주·소경의 성곽과 그 활용 - 한신주와 국원소경을 중심으로-」, 『한국성곽학보』21.
- 박성현, 2019, 「삼국통일 후 신라의 지방제도, 얼마나 달라졌나」, 『역사비평』127.
- 박태우, 1987, 「통일신라시대의 지방도시에 대한 연구」, 『백제연구』18.
- 배종도, 1989, 「신라하대의 지방제도 개편에 대한 고찰」, 『학림』11.
- 서의식, 1996, 「통일신라기의 開府와 眞骨의 受封」, 『역사교육』59.
- 서지민, 2024,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의 특징과 건립배경 연구」, 『동악미술사학』26.
- 어창선, 2005, 「중원경 치소 범위와 구조」, 『북원경과 중원경의 의미와 역사』(원주시충주시 공동 학술대회, 고대도시 : 북원경과 중원경).
- 원인식 편, 1986, 『원주원씨세보』, 원주원씨대동보소.
- 윤경진, 2000, 「고려 군현제의 구조와 운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동, 1980,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한국연구원.
- 이기백, 1962, 「대등고」, 『역사학보』17·18합집.
- 이기백, 1974, 『신라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 이병도·김재원, 1959 『한국사: 고대편』, 을유문화사.
- 이예슬, 2015, 「7~8세기 신라 도독과 총관의 성격」,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재, 1994, 「신라통일기 조세수취 기준과 등급연」, 『역사와현실』11.
- 이인재, 1995, 『新羅統一期 土地制度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인재, 1997, 「新羅統一期 田莊의 形成과 經營」, 『김용섭교수 정년기념논총』, 지식산업사.
- 이인재, 2010, 「나말여초 사회변동과 후삼국」, 『한국중세사연구』29.
- 이인재, 2016, 『북원경과 남한강 불교문화』, 혜안.
- 이인재, 2020, 「한국 고·중세 결부제의 전개과정」, 『학림』46.
- 이인재, 2023, 「중세 전환기의 중원문화와 교통」, 『중세전환기의 중원과 교통로 학술대회 자료집』.
- 이인재, 2024, 「고구려 주니어포럼 마침소감 - 조공제도와 중화민족과 관련하여」, 『고구려발해연구』79.
- 이재준, 1981, 「사랑부명 평와에 대한 소고」, 『서원학보』2.
- 이재환, 2012, 「통일신라시대 북원소경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한국상고사학보』75.
- 이종욱, 1974, 「남산신성비를 통하여 본 신라의 지방통치체제」, 『역사학보』64.
- 이현숙, 1992, 「신라말 어대제의 성립과 운용」, 『사학연구』43·44합.
- 임병태, 1967, 「新羅小京考」, 『역사학보』35·36합.
- 전덕재, 2002, 「신라 소경의 설치와 그 기능」, 『진단학보』93.
- 전덕재, 2011, 「신라의 왕경과 소경」, 『역사학보』209.
- 전덕재, 2021 「통일신라 주·군·현의 기능과 운영」 『역사문화연구』127.
- 정요근, 2011, 「통일신라시기의 간선교통로-왕경과 州治·小京간 연결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63.

- 차용걸, 1998, 『原州 鵠原山城·海美山城 地表調査報告書』,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최경신, 2024, 「7세기 신라 국원소경의 공간과 주민의 신분문제」, 『중원문화연구』32,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2, 『상당산성지표조사보고서』.
- 하일식, 1999, 「고려 초기 지방사회의 주관(州官)과 관반(官班) - 금석문 자료 분석을 통한 시론적(試論的) 해석 -」, 『역사와 현실』34.
- 하일식, 2011, 「신라 왕경인의 지방이주와 편적지」, 『신라문화』38.
- 하현강, 1977, 『고려지방제도의 연구』, 한국연구원.
- 하현강, 1988,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 한국역사연구회 편, 1996, 『역주 나말려초금석문(上,下)』, 혜안.
-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Ⅲ)』,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한우근, 1960, 「古代國家成長過程에 있어서의 對服屬民施策 - 其人制起源說에 對한 檢討에 붙여서(上)」, 『역사학보』12.
- 황선영, 1994, 「新羅 下代の 府」, 『한국중세사연구』창간호.
- 황인호, 2013, 「국원소경에서 중원소경으로의 변천과정 연구」, 『고고학』12-3.

(일문)

- 木村誠, 1979, 「統一新羅の郡縣制の涇江地方經營」, 『朝鮮歷史論集』上.
- 日野開三郎, 1986, 『唐代先進地帶の莊園』, 秀巧社,

【Abstract】

Background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establishment of Bukwon-gyeong·Jungwon-gyeong·Seowon-gyeong

Lee, In-jae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Silla, which concluded the Three Kingdoms Unification War, reorganized the local system so that the old Baekje people and the old Goguryeo people could become complete Silla people. The person in charge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system was the middle-class working-level officials trained by the literary revolution of the Seolchong and the accompanying educational revolution.

The means of reforming the local system was the Chinese-style Commanderies and Counties system, but the Commanderies and Counties system adopted by Silla in the North-South States Stage was The System of Commandments and Counties based on the independent relationship style, reflecting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Silla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Silla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was a confederation state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civil servants and central civil servants in Seoul was horizontal and pluralistic.

In addition, Silla, the North-South States, recognized a system that recognized each local power with its own order of classes. Such local powers were called The Local Administrative Influentials.

The best example of this local government system was the Silla' Little Seoul during the Northern and Southern States Period.

The ministers of Little Seoul worked with the Local Civil Servants to develop policies and implement them with the villagers. However, Silla's local administration clashed with traditional powers, and after the 9th century, it changed and led to the fall of the dynasty, which was reorganized into the Goryeo-style local system.

Keywords : Seolchong(설총), The System of Commanderies and Counties based on the dependent relationship style(영속관계형 군현제), The Local Civil Servant(대등), The Local Power's own order of classes(관반), Little Seoul(소경)